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국가정책정보노트

방글라데시: 종교적 소수자 및 무신론자

버전 4.0

2025년 6월

목차

개요.....	5
평가.....	6
평가 개요.....	6
1. 주요 사실, 신빙성 및 기타 확인/회부 사항.....	6
1.1 신빙성.....	6
1.2 배제.....	7
2. 협약상 사유.....	7
3. 위험.....	7
3.1 국가로부터의 위험.....	7
3.2 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위험.....	10
4. 보호.....	12
5. 국내 피신.....	13
6. 인정.....	13
국가정보.....	14
국가정보 개요.....	14
7. 인구통계.....	14
7.1 인구.....	14
7.2 지리적 분포.....	16
8. 법적 배경.....	18
8.1 헌법.....	18
8.2 형법.....	19
8.3 신성모독/종교적 명예훼손.....	20
8.4 신분관계법.....	23
8.5 종교단체 등록.....	25
8.6 종교 개종.....	25
9.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	25
10 국가의 입장.....	27
10.1 정부의 입장과 정책.....	27
11. 국가의 처우.....	29
11.1 일반.....	29

11.2 이슬람 모독에 대한 체포 및 기소	30
11.3 힌두	33
11.4 불교도	35
11.5 기독교도	35
11.6 무신론자	36
11.7 아흐마디교도	36
11.8 보호	36
12. 사회적 처우 및 종교 간 관계	40
12.1 일반	40
12.2 종교적 소수자 대상 폭력에 관한 통계	44
12.3 힌두	48
12.4 불교도	52
12.5 기독교도	53
12.6 무신론자	56
12.7 아흐마디교도	58
12.8 수피 교도	60
13. 구제 수단	62
13.1 공식 민원 처리 제도	62
13.2 시민사회 단체	63
연구방법론	65
작업지침	66
참고문헌	67
인용 출처	67
미인용 참고자료	73
버전 관리 및 의견 수렴	75
영국 내무부로 의견 제출 방법	75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	75

개요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약 91%가 수니파(Sunni) 무슬림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인 국가이다. 기타 종교로는 힌두교(Hinduism), 불교(Buddhism), 기독교(Christianity)가 있다.

헌법과 기타 법률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종교의 평등한 지위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는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종교적 다양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법률은 종교 시설에 대한 범죄 및 종교적 동기에 기인한 개인 대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및 「2018년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2018, DSA 2018)」(2023년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Act, CSA)」으로 대체)이, 이슬람 교리를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혐의로 개인을 체포·구금하는 데 악용된 사례가 있다.

종교적 소수자는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정치적 격변과 연계된 산발적 종교·집단 간 폭력 사태로 인해 사망, 부상, 폭행 및 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정치적 소요 사태 당시 종교적 소수자들이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된 바 있으나, 상당수 사례는 종교적 차이보다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론은 일반적이지 않고 대중적이지 않으며 누군가 공개적으로 주창할 가능성은 낮다. 무신론자는 특히 타인에게 신념을 전파하려 할 경우 차별과 폭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종교적 소수자 또는 그러한 소수자로 인식된 자가 제기한 신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Refugee Convention 1951)(1951년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실제 또는 전가된 종교에 따른 협약상 사유에 해당한다.

종교적 소수자가 국가 및/또는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를 입을 실질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

종교적 소수자 집단 구성원이 이슬람 모독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무신론자와 세속주의자를 포함하여 이슬람 모독 범죄를 근거로 체포 및 기소된 자는 형평성에 반하고 차별적이며 박해에 준하는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는 종교적 소수자 박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종교 시설, 축제 및 행사장에 치안 인력을 배치하며, 경찰은 종교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가담자를 체포 및 기소한다.

비국가 행위자, 지역 공무원 또는 불량 국가 행위자로부터 명백한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입증된 경우, 자국 내 피신을 통해서 그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영국 「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제94조에 따라 그 신청이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모든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심사되어야 하며,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에 직면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평가

평가 정보 업데이트 일자: 2025년 6월 6일

평가 개요

이 장에서는 이 보고서와 관련된 증거, 즉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 난민법/인권법 및 정책 관련 정보, 그리고 적용 가능한 판례법을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 신청인이 종교적 소수자 집단 또는 무신론자와의 연루로 인해 국가에 의한 박해/심각한 위협의 실질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
- 국가 또는 준국가 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박해/심각한 위협으로부터 국내 피신이 가능한가
- 난민 신청이 거부될 경우, 「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제94조에서 규정한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 그러나 난민조사관은 모든 난민 신청을 심사할 때 **반드시** 신청인의 개별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1. 주요 사실, 신빙성 및 기타 확인/회부 사항

1.1 신빙성

- 1.1.1 신빙성 평가에 관한 상세 정보는 신빙성 및 난민 지위 평가 지침을 참조한다.
- 1.1.2 난민조사관은 신청인이 현재 영국 비자 또는 다른 형태의 체류허가를 신청한 상태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영국 비자 신청 기록과 일치하는 망명신청 건의 경우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신청 내역을 검토해야 한다(비자 신청 기록 대조 확인에 관한 망명 지침, 영국 비자 신청인의 난민 신청 참조).
- 1.1.3 난민조사관은 국제생체정보보조회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회의 실시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이민 5개국 생체정보 공유 절차 참조).
- 1.1.4 신청인이 주장하는 출신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난민조사관은 가능한 경우 언어 분석 테스트(모국어 시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언어 분석에 관한 망명 지침 참조).

내무부 민감 정보 – 시작

이 절의 기재 정보는 영국 내무부 대외비 자료로 이 문서에서 삭제한다.

내무부 민감 정보 – 종료

[목차로 돌아가기](#)

1.2 배제

- 1.2.1 난민조사관은 난민협약의 난민 지위 대상 배제 조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해야 할 중대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각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 1.2.2 신청인이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 적용 배제 대상인 경우, 인도적 보호 대상 배제 범위가 난민 지위 대상 배제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 신청인은 인도적 보호 부여 대상자에서도 배제된다.
- 1.2.3 난민 지위 대상 배제 및 조건부 체류허가에 대한 지침은 난민협약 제1F조 및 제33조 제(2)항의 난민 지위 대상 배제, 인도적 보호 및 조건부 체류허가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내무부 비공개 민감 정보 – 시작

이 구간 기재 정보는 영국 내무부 대외비 자료로 이 문서에서 삭제한다.

내무부 비공개 민감 정보 – 종료

[목차로 돌아가기](#)

2. 협약상 사유

- 2.1.1 실제 또는 전가된 종교
- 2.1.2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협약상의 난민 인정 사유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또는 전가된 사유 측면에서 명백한 박해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 유무가 중요하다.
- 2.1.3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상의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난민 심사의 관건은 신청인이 인도적 보호(Humanitarian Protection, HP) 자격에 부합하는 심각한 위해에 대한 실질적 위험에 직면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 2.1.4 신청인이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 따른 보호 자격을 갖춘 경우, 난민조사관은 신청인이 인도적 보호(HP) 부여 사유가 되는 '심각한 위해'의 실질적 위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 2.1.5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 5개 사유에 관한 상세 정보는 신빙성 및 난민지위 평가 지침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3. 위험

3.1 국가로부터의 위험

- 3.1.1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및 아흐마디(Ahmadis) 교도를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은 국가로부터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에 대한 실질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 이와 다른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3.1.2 종교적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은 이슬람 모독 관련 범죄로 체포 및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 무신론자와 세속주의자를 포함하여 이슬람 모독 범죄를 근거로 체포 및 기소된 자는 형평성에 반하고 차별적이며 박해에 준하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각 사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3.1.3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202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91%가 이슬람교 수니파에 속했는데, 이는 2013년에 기록된 89%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종교적 소수자는 인구의 9% 미만을 차지한다. 2024년 방글라데시의 총인구는 1억 6,80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종교 인구통계 및 인구 참조).
- 3.1.4 최대 종교적 소수자는 힌두교도로, 인구의 약 8%(약 1,300만 명)를 차지한다. 힌두교 인구가 다수인 지역은 방글라데시 남부, 동부 및 북부이며, 최다 인구가 실렛(Sylhet)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는 약 4만 개 즉, 힌두교도 305명당 1개에 해당하는 힌두교 사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인구통계 참조)
- 3.1.5 나머지 인구 1%(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기독교도는 약 50만 명으로 방글라데시 전역에 분포하며 바리샬(Barishal), 고팔간즈(Gopalganj), 다카(Dhaka)시, 가지푸르(Gazipur) 및 쿨나(Khulna)에 고도로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인구통계 참조).
 - 불교도는 약 100만 명이며, 주로 방글라데시 치타공 구릉지대(Chittagong Hill Tracts, CHT)와 북부 지역에 거주한다(인구 참조).
 - 그 밖의 종교 집단으로는 아흐마디교도(약 10만 명)와 수피 교도가 있다(인구 참조).
- 3.1.6 무신론자는 약 17만 1,100명 또는 총인구의 0.1%로 추정된다(인구 참조).
- 3.1.7 방글라데시는 세속적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 및 기타 법률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하나, 모든 종교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힌두교, 불교 및 기독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종교적 학대 및 특정 종교를 수호하는 자에 대한 차별 또는 박해를 금지한다. 또한 '법률, 공공질서 및 도덕적 규범에 따라' 모든 종교를 표명, 실천, 전파할 권리를 보장하며, 종교 기관의 설립·운영을 허용한다. 아울러 학생이 교육기관에서 본인의 신앙과 무관한 종교 활동이나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법은 특정 신앙이 없는 자 또는 무신론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헌법 및 형법 참조).
- 3.1.8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종교적 다양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2024년 11월 육군 총사령관이 전국불교회의 연설에서 종교 간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024년 12월, 임시 정부 수반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는 종교적 소수자 지도자들과 만나 우려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평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정부 입장 및 정책 참조).
- 3.1.9 방글라데시 법은 종교 시설에 대한 재물손괴 및 무단 침입 등의 범죄와 고의적 모욕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동기에 기인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과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은 지난 하시나(Hasina) 정권에서 이슬람 교리를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악용되었다.

2023년 9월 「디지털 보안법(DSA)」은 폐지되고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Act, CSA)」으로 대체되었다. 「사이버 보안법(CSA)」은 종교적 정서와 관련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최대 징역 2년 이하 및/또는 벌금 50만 방글라데시 타카(약 3,187 영국 파운드)로 처벌을 경감했다. 2024년 8월에 구성된 임시정부는 「사이버 보안법(CSA)」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사이버 보안 조례(Cyber Security Ordinance)」 초안이 공개되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존 「사이버 보안법(CSA)」의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5년 3월 임시정부는 「사이버 보안법(CSA)」의 적용을 받는 '언론 범죄' 관련 사건 410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발표했지만, 이 중 종교적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몇 건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형법 및 신성모독/종교적 명예훼손 참조).

- 3.1.10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무신론자는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적 정서를 해치는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 발생 빈도나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신론자 블로거인 셀림 칸(Selim Khan)이 2023년 11월 「사이버 보안법(CSA)」과 형법에 따라 체포 및 구금된 사례가 유일하다. 셀림 칸에 대한 보석 청구는 반복적으로 기각되다가 2024년 3월 13일 결국 보석이 허가되었으나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도 셀림 칸은 여전히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국가적 처우: 무신론자 및 세속주의자 참조).
- 3.1.11 힌두교도들은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괴롭힘 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소수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현재 「사이버 보안법(CSA)」으로 대체된 「디지털 보안법(DSA)」과 같은 법률이 힌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온라인상에 모욕적 정보를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힌두교도들이, 이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행사한 무슬림 가해자보다 법원으로부터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국가의 처우: 힌두 참조).
- 3.1.12 불교도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불교도는 치타공 구릉지대(CHAT)에 거주하는 토착민들로,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는 1,000개의 불교 사원이 있다. 국가가 사원 접근을 통제하거나 불교도의 종교 활동을 제한한다는 정황은 없다. 일부 불교도는 토지권 및 문화유산 보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이 국가로부터 조직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종교적 소수자의 지리적 분포 및 국가의 처우: 불교도 참조).
- 3.1.13 기독교도는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다. 기독교도가 국가적 차별을 받는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기독교 교회의 총 개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교회는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한 출처에 따르면 2022년 지방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AL) 소속 공무원이 복음주의 교회 건축을 중단시킨 사례 1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우가 빈번하거나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정황은 없다(국가의 처우: 기독교도 및 지리적 분포 참조).
- 3.1.14 아흐마디교도 및 기타 소수자 집단이 국가에 의해 신앙 활동을 금지 당하거나 차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국가의 처우: 아흐마디교도 참조).

3.1.15 위험 평가에 관한 상세 지침은 신빙성 및 난민 지위 평가 지침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3.2 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위험

- 3.2.1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아흐마디교도 및 무신론자를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은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에 대한 실질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 이와 다른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3.2.2 방글라데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종교적 다양성을 갖춘 국가로 종교적 소수자가 전국에 거주하고 있다. 종교 간 관계 및 공존 방식은 대체로 우호적이고 평화로우며,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다수의 종교 축제를 함께 기념하기도 한다. 종교적 소수자는 대개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별다른 괴롭힘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사회적 처우와 종교 간 관계 참조).
- 3.2.3 정치적 격변기에는 산발적인 종교·집단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7월과 8월 아와미 연맹(AL) 정부가 몰락하던 시기에 폭력 사태가 빈발하여 사망, 부상, 폭행 및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2025년 1월, 방글라데시 경찰(Bangladesh Police Force, BPF)은 비정부기구(NGO)인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angladesh Hindu Buddha Christian Unity Council, BHBCUC)로부터 2024년 8월 4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한 종교적 소수자 대상 공격 및 기물 파손 사건 1,769건을 보고받아 이를 조사했다. 방글라데시 경찰(BPF)은 해당 사건 중 1,234건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20건을 종교·집단 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사회적 처우 참조).
- 3.2.4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수치는 특히 2024년 8월 이후 상이하다.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Ain o Salish Kendra, ASK)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교적 소수자 및 토착민 집단 대상 폭력 사례 총 926건과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폭력 사례 27건을 보고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angladesh Buddhist Hindu Christian Unity Council, BHBCUC)는 2024년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교적 소수자 대상 폭력 사건 2,184건과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폭력 사건 92건을 보고했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일부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나 경제적·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폭력이 아닌 종파적 성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2024년 힌두교도 대상 폭력 사례 2,200건에 관한 보고서는 상당한 논란을 빚었으며, 방글라데시 당국과 독립 인권 단체들은 해당 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정치적 혼란기에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사례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이 항상 종교적 탄압 때문은 아니며, 2025년에는 폭력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종교적 소수자 대상 폭력 통계 참조).
- 3.2.5 2024년 8월, 집권 중이던 아와미 연맹(AL)의 축출을 불러온 시위 기간 및 그 직후, 힌두교도의 가옥, 사업체 및 예배 장소가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특히 타쿠르가온(Thakurgaon) 및 랄모니르하트(Lalmonirhat)와 같은 농촌 지역과 역사적으로 긴장이 지속되어 온 지역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폭력 사태는 아와미 연맹(AL)에 우호적 성향으로 간주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사회적 처우: 힌두 참조).
- 3.2.6 기독교도가 사회적 차별 또는 괴롭힘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는 제한적이다. 기독교 구호단체인 오픈 도어즈(Open Doors)에 따르면 성탄절 기간 방글라데시 북부의 교회들이 성탄절 축하 행사 관련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오픈 도어즈는 최근 정치적 불안정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기독교 개종자를 대상으로 최소 7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흉기 위협, 가옥 약탈, 교회 불법 점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사건의 발생 빈도는 낮은 편이며, 조직적인 탄압이라기보다는

산발적인 개별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처우: 기독교도 참조).

- 3.2.7 불교도 대상 사회적 처우나 종교적 동기에 의한 범죄 피해 보고는 제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도 토착민 집단과 무슬림 벙골인(Bengali) 정착민 간에 간혹 충돌이 발생해 왔으나, 이는 종교적 차이보다는 주로 치타공 구릉지대(CHT) 내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9월과 10월에 보고된 사건으로는 토착민 공동체 소유 상점에 대한 기물 파손 및 약탈, 불교 사원 공격 등이 있다(사회적 처우: 불교도 참조).
- 3.2.8 아흐마디교도는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규정하나, 방글라데시의 많은 무슬림은 이들이 예언자 무함마드 이후에 도래한 또 다른 예언자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무슬림으로 간주한다. 대체로 아흐마디교도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출할 수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사회적 폭력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2023년 3월 판차가르(Panchagarh)에서는 지역 모스크가 반아흐마디(anti-Ahmadi) 활동가의 사망 루머를 방송으로 알리자, 수백 명의 군중이 아흐마디 공동체 연례 집회를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아흐마디교도 1명을 포함하여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사회적 처우: 아흐마디교도 참조).
- 3.2.9 또한 최근 정치적 불안정 기간 동안 아흐마디교도를 겨냥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2024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에만 총 7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판차가르에서 이슬람 성직자가 주도하는 집단이 아흐마디교도 공동체 구성원 여러 명을 공격하고 가옥과 모스크를 파괴했으며, 이 과정에서 16세 소년이 부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을 보고했다(사회적 처우: 아흐마디교도 참조).
- 3.2.10 무신론자 또는 세속주의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다. 관련 보고는 대부분 2015년경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무신론자 블로거들이 처한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과 2018년 사이 여러 명의 무신론자 및 세속주의자 블로거가 공격을 받았으며 그중 상당수가 살해되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무신론자 작가인 아비지트 로이(Avijit Roy)와 2018년 세속주의 정치 활동가인 샤자한 바추(Shahzahan Bachchu)가 피살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무신론자나 세속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회적 폭력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사회적 처우: 무신론자 참조).
- 3.2.11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는 무신론이 일반적이지 않고 대중적이지 않으며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밝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다. 무신론자는 특히 타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려 할 경우 차별과 폭력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경찰에 신고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사회적 처우: 무신론자 및 국가로부터의 위험 참조).
- 3.2.12 위험 평가에 관한 상세 지침은 신빙성 및 난민 지위 평가 지침과 국가정책정보노트: 정치적 상황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4. 보호

- 4.1.1 신청인이 출신 국가로부터 명백한 박해 또는 심각한 위협의 공포에 직면한다고 입증된 경우, 신청인이 출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 4.1.2 신청인이 출신 국가의 불법 국가 행위자 및/또는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명백한 박해 또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직면한다고 입증된 경우, 신청인이 출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4.1.3 자신의 신념을 공표한 무신론자와 종교적 정서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자는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와 다른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4.1.4 방글라데시는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적발, 기소 및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 법적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박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왔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은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가 작동하더라도 경찰 대응의 실효성과 직무 수행 형태에는 편차가 존재한다.
- 4.1.5 사법제도 내 일부 개인의 부패, 동조 또는 취약성이 국가의 보호 의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4.1.6 방글라데시 정부는 힌두교 축제인 두르가 푸자(Durga Puja)와 디왈리(Diwali), 성탄절, 부활절, 부처님오신날(Buddha Purnima) 기간에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 시설, 축제 및 행사장에 치안 인력을 배치한다(국가의 처우: 개요 참조).
- 4.1.7 일부 종교 집단은 폭력 사태 발생 기간 동안 법 집행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비난했다. 아흐마디교도 지도자는 2023년 3월 3~4일 판차가르 지구(Panchagarh district)에서 열린 연례 집회 기간에 수백 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아흐마디교도 공동체를 공격했으나 경찰과 정부 공무원이 이를 방관했다고 고발했다. 해당 공격 이후, 경찰은 8,000명 이상을 입건하고 80여 명을 체포했으며, 지역 당국은 피해를 본 아흐마디교도들에게 구호 자금으로 1,000만 방글라데시 타카(63,673 영국 파운드)를 지급했다. 2024년 8월 임시정부는 아흐마디교도와 기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공격과 폭력 사태에 대응하여 소수자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했다(보호 참조).
- 4.1.8 경찰과 사법 당국은 종교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연루된 자에 대해 체포 및 기소하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발생한 종교 소수자 대상 폭력 사태 이후, 방글라데시 경찰은 88건의 사건과 관련하여 70명을 체포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의자가 기소되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힌두교 사원 훼손 사건의 경우 연루자가 체포되어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교적 소수자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방관했다는 비난도 제기되었다(보호 및 사회적 처우와 종교 간 관계 참조).
- 4.1.9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수피(Sufi) 성지가 파손되고 공격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부 공격 사건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방글라데시 경찰청 부총감(Additional Inspector General, AIG)은 추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으며, 연루자는 신원 확인 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사회적 처우: 수피 교도 참조).

- 4.1.10 임시정부 집권 이후 2024년 10월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VOA)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민의 대다수(응답자의 64.1%)는 임시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종교적·민족적 소수자에게 안전을 더 보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호 참조).
- 4.1.11 방글라데시의 주요 종교 단체인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는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종교적·민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며 정부에 소수자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 참조).
- 4.1.12 국가정책정보노트 방글라데시: 보호 행위자도 참조한다.
- 4.1.13 국가의 보호 평가에 관한 상세 지침은 신뢰성 및 난민 지위 평가 지침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5. 국내 피신

- 5.1.1 신청인이 출신 국가의 비국가 행위자 또는 불법 국가 행위자로부터 명백한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입증된 경우, 자국 내 피신을 통해 그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 5.1.2 이는 일반적으로 다카를 비롯하여 해당 집단이 합리적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국내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1억 6,7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중 종교적 소수자는 약 1,500만 명이며, 그 가운데 약 1,300만 명이 힌두이다(인구통계 참조).
- 5.1.3 방글라데시 헌법 제36조는 치타공 구릉지대(CHT)의 특정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 시민에게 방글라데시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어느 곳에서든 거주하고 정착할 권리를 보장한다.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다양한 이유로 이주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주한다고 보고했다(국가정책정보노트 방글라데시: 국내 피신 참조).
- 5.1.4 힌두는 주로 방글라데시의 북부와 남서부에 거주하지만, 남부, 동부 및 북부에서도 힌두 인구가 밀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도는 주로 바리살, 쿨나 및 가지푸르에 거주하고, 불교도는 주로 치타공 구릉지대(CHT)와 북부에 거주하며, 아흐마디교도는 다카, 브라만바리아(Brahmanbaria) 및 키쇼레간즈(Kishoreganj)에 거주한다(지리적 분포 참조).
- 5.1.5 국내 피신 및 고려 요소에 관한 상세 지침은 신뢰성 및 난민 지위 평가에 관한 망명 지침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6. 인정

- 6.1.1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영국「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제94조에 따라 그 신청이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 6.1.2 인정에 대한 상세 지침은 「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제94조에 따른 보호 및 인권 보호 신청에 대한 인정 지침을 참고한다(명백한 근거 부재 신청 사례).

[목차로 돌아가기](#)

국가정보

국가정보 개요

이 장에는 연구 방법론에 따라 수집, 정리 및 분석되었으며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공개할 수 있는 국가정황정보(COI)를 기재한다. 국가정황정보(COI)는 평가를 위한 증거 기반을 제공하며, 평가 개요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지침이 된다.

이 장의 구조와 내용은 이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와 관련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주제 설정 작업지침을 따른다. 이 문서는 포괄적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특정 사건, 인물 또는 조직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해당 사건의 발생 여부, 인물 또는 조직의 실존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 언급하는 국가정황정보(COI)는 **2025년 6월 6일** 또는 그 이전에 출판되거나 공개되었다. 해당 일자 이후 발생한 사건이나 출판된 보고서는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난민조사관은 관련 국가정황정보(COI)를 심사의 증거 기반으로 사용해야 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7. 인구통계

7.1 인구

7.1.1 2025년 2월 12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방글라데시에서 2024년 7월과 8월에 진행된 시위와 관련한 인권 침해 및 학대 사실 조사 보고서(OHCHR 2025 FF report)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진상조사단이 방글라데시 현지 및 온라인에서 피해자, 목격자, 학생 및 기타 시위 지도자... 그리고 다양한 기타 전문가 및 관련자와 진행한 기밀 심층 인터뷰 230건 이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¹.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에는 다양한 공동체 및 집단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벵골어를 사용하는 벵골인 수니파 무슬림과는 종교적, 민족적 또는 언어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혔다.²

7.1.2 방글라데시 인구 추정치는 출처에 따라 다양하다. 2022년 6월 실시된 방글라데시 인구 및 주택 조사(Bangladesh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PHC)³는 총인구를 1억 6,500만 명으로 추정했다.⁴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Central Intelligence Agency World Factbook, CIA World Factbook)은 2024년 방글라데시 총인구가 1억 6,80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했고⁵, 세계은행(World Bank)은 다양한 출처를 인용하여 2023년 방글라데시 국가 인구가 약 1억 7,100만 명이라고 밝혔다.⁶

7.1.3 방글라데시 인구 및 주택 조사(BHPC)에 따르면 종교별 인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⁷

종교	인구	인구 비율
무슬림	150,415,066	91.08%
힌두	13,143,749	7.96%

¹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 (paragraph 5), 12 February 2025

²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 (paragraph 228), 12 February 2025

³ BB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2, National Report](#) (page xxxvii), November 2023

⁴ BB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2, National Report](#) (page 59), November 2023

⁵ CIA, [The World Factbook: Bangladesh](#), 19 March 2025

⁶ World Bank, [Data](#) (Population, total – Bangladesh), no date

⁷ BB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2, National Report](#) (page 67), November 2023

불교도	1,001,927	0.61%
기독교도	488,555	0.30%
기타	101,195	0.06%
종교적 소수자 총인구	14,735,426	8.92%

- 7.1.4 2022년 방글라데시 인구조사 분석에서는 기타로 분류된 다른 이슬람교 종파에 어떤 종교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세부 분류를 제공하지 않았다⁸.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종교적 소수자와 무신론자의 비율은 총인구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기록된 2013년 인구조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 7.1.5 가톨릭교회의 교황청 재단¹⁰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 ACN)’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내용을 포괄하여 2023년 6월 출판한 종교 자유 보고서(ACN 2023 Religious Freedom Report)에서 무신론자의 비율을 총인구의 0.1%¹¹ 즉 17만 1,100명으로 추정했다(출처: 국가정책정보팀 CPIT).
- 7.1.6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다루는 2024년 6월 26일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2023년 방글라데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 State Department 2023 Bangladesh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SD Bangladesh RIRF 2023)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2022년 방글라데시 국가 인구조사에 따르면, 수니파 무슬림이 인구의 약 91%를 차지하고 힌두교도가 약 8%를 차지한다. 나머지 인구에는 로마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기독교도가 약 40만 명, 상좌부 불교도 약 100만 명, 소수의 시아파 무슬림, 아흐마디 무슬림, 바하이교도, 애니미즘 교도, 국제크리슈나의식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ISKCON) 회원, 불가지론자 및 무신론자가 포함된다.¹²
- 7.1.7 방글라데시 내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인 국제인권보호단체(Human Rights Defense International, HRDI)¹³는 2024년 12월 10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71년 독립 당시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했던 힌두는 현재 약 8~10%를 차지한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경제적 이주, 종교·정치적 분쟁 기간 동안 소수자 공동체의 이탈, 무슬림에 비해 낮은 힌두의 출산율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⁴
- 7.1.8 ‘... 세계를 주도하는 쟁점, 인식 및 동향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비당파적 사실 분석 기관...’¹⁵으로 알려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PRC)는 참가자의 현재 및 유년기 종교적 정체성을 분석한 2024년 글로벌 인식 조사(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에 근거하여¹⁶ 2025년 3월 9일, 종교 개종(religious conversion)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3월 9일 참가자 1,046명¹⁷을 대상으로 수행된 대면 면접에 기반한 방글라데시 데이터를 분석했다.

⁸ BB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2, National Report](#) (page 68), November 2023

⁹ USSD, [2020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page 2), 12 May 2021

¹⁰ ACN, [Our Mission](#), no date

¹¹ ACN, [2023 Religious Freedom Report: Bangladesh](#), June 2023

¹²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1), 26 June 2024

¹³ HRDI, [About us](#), no date

¹⁴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¹⁵ PRC, [About Pew Research Center](#), no date

¹⁶ PRC, [Methodology](#), 26 March 2025

¹⁷ PRC, [Country-Specific Methodology](#), no date

2024년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PRC 2024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방글라데시에서 힌두교도로 성장한 거의 모든 사람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힌두교도와 동일시한다. 방글라데시에서 현재 정체성을 힌두교도와 동일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힌두교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응답한다. 예컨대, 조사 대상 방글라데시 힌두교도 전원이 힌두교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응답한다.¹⁸

7.1.9 또한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PRC 2024 report)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100%가 여전히 무슬림이다.¹⁹

7.1.10 2024년 9월 27일 아시아의 대표적 가톨릭 독립 언론 서비스²⁰인 아시아가톨릭뉴스(Union of Catholic Asian News, UCA News)는 기사에서 방글라데시 아흐마디 무슬림이 약 1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²¹ 이 기사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를 출처로 인용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2005년 '[방글라데시 아흐마디아 공동체 박해 \(Persecution of the Ahmadiyya Community in Bangladesh\)](#)'라는 논문에 근거한 것이므로 인구 수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토한 다른 참고자료는 아흐마디 무슬림 인구에 관한 세부 분류 또는 최근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다([참고문헌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7.2 지리적 분포

7.2.1 2022년 11월 발표된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방글라데시 국가정보 보고서(DFAT 2022 report)는 '방글라데시 내 다수 정보 출처 및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현장 지식을 기반으로'²²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방글라데시의 남부, 동부 및 북부에 힌두 인구 다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인구학적 추세는 유동적이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힌두교도 및 기타 종교적 소수자의 수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불교도는 소수이다. 이들 대부분은 토착민이며 치타공 구릉지대(CHT)에 거주한다.²³

7.2.2 방글라데시 2022년 인구 및 주택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역별 분석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모든 구역에서 지배적이며, 구역 중 마이멘싱(Mymensingh)의 무슬림 인구 비율이 최고 95.57%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힌두교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북동부 지역 실렛으로, 13.51%를 차지했다.²⁴

7.2.3 미국 국무부는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치타공 구릉지대(CHT)와 북부 지구에 집중 분포하는 소수 민족들은 일반적으로 비이슬람교 신앙을 실천한다. 가이반다(Gaibandha)의 일부 산탈족(Santal)과 같이 마이멘싱의 가로족(Garo)은 주로 기독교도이다. 불교도 대부분은 치타공 구릉지대(CHT)의 토착민 인구의 구성원이다. 벵골인 및 소수 민족 기독교도들은 방글라데시 전역의 공동체에 거주하며, 바리살시와 바리살 지구의 구르나디(Gournadi), 고팔간즈 지구의 바니아르차르(Baniarchar), 다카시의 모니푸리파라(Monipuripara)와 크리스찬파라(Christianpara), 그리고 가지푸르와 쿨나시에서

¹⁸ PRC, [Around the World, Many People Are Leaving...](#) (Chapter 5), 26 March 2025

¹⁹ PRC, [Around the World, Many People Are Leaving...](#) (Chapter 4), 26 March 2025

²⁰ UCA News, [About Us](#), no date

²¹ UCA News, [Bangladesh turmoil proving a nightmare for Ahmadiyya Muslims](#), 27 September 2024

²²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 (paragraph 1.4), 30 November 2022

²³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s 3.42, 3.50), 30 November 2022

²⁴ BB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2, National Report](#) (page 67), November 2023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²⁵

- 7.2.4 방글라데시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종교복지신탁(Christian Religious Welfare Trust)²⁶은 작성일 이상의 웹사이트를 통해 방글라데시 전역에 있는 기독교 교회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²⁷ (기독교종교복지신탁 웹사이트는 벙골어로 작성되었으며 국가정책정보팀(CPIT)이 무료 온라인 번역기를 사용하여 번역했으므로 100%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 7.2.5 온라인 영어 불교 학술지²⁸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2025년 1월 7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불교 신자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남부에 거주하며, 치타공 지구의 여러 사원에 상주하는 상좌부(Theravāda) 승려들이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고 공동체 생활을 지도한다. 방글라데시 전역에 약 1,000개의 불교 사원이 있다.²⁹
- 7.2.6 붓다 다르마 교육 협회(Buddha Dharma Education Association) 산하 웹사이트인 붓다넷(Buddhanet)은 불교 협회, 사원 및 단체의 목록을 제공한다.³⁰ 그러나 이 웹사이트는 해당 목록의 업데이트 주기나 불교 단체 관련 정보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 7.2.7 2024년 5월 14일 방글라데시 최대 영자 일간지³¹ 데일리 스타(Daily Star)는 방글라데시 상위 5대 불교 유적지에 관한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인구 중 불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벙골 지역의 풍부한 불교 유산 덕분에 사원과 승원이 상당수 존재한다.³²
- 7.2.8 사우디아라비아 영자 신문³³ 아랍 뉴스(Arab News)는 불교 종교 시설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콕스 바자르(Cox's Bazar) 숲에 있는 랑쿠트 바나스람(Rangkut Banasram)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방글라데시 내 불교 신자는 약 100만 명에 불과하며, 그 대다수는 남동부 해안 지역에 거주한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가 직접 이 지역을 가르침의 터전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랑쿠트 바나스람 관리인 마하테로(Mahathero)는 “콕스 바자르 지구 내 여러 지역에 약 150개의 불교 관련 건축물이 산재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구의 인구 약 60만 명 중 불교도는 약 5만 명 정도이다. 100년 전만 해도 불교도가 이곳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³⁴

- 7.2.9 2024년 2월 20일 벙골 일간지³⁵ 에이 사마이(Ei Samay)는 다음과 같은 기사(벙골어로 출판되었으며 국가정책정보팀(CPIT)이 무료 온라인 번역 도구를 사용하여 번역했으므로 100%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를 보도했다.

현지 힌두교 단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는 약 4만 개 사원이 있다. 2011년 힌두교 종교 복지 신탁(Hindu Religious Welfare Trust)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 사원은 총 4만 438개로 집계되었다.

²⁵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1), 26 June 2024

²⁶ CRWT, [Mission & Vision](#), 23 September 2024

²⁷ CRWT, [Church List](#), 19 September 2015

²⁸ Buddhistdoor Global, [Mission Statement](#), no date

²⁹ Buddhistdoor Global, [Buddhism in Modern Bangladesh](#), 7 January 2025

³⁰ Buddhanet, [World Buddhist Directory](#) (Bangladesh), no date

³¹ The Daily Star, [About Us](#), no date

³² The Daily Star, [5 top Buddhist sites in Bangladesh](#), 14 May 2022

³³ Arab News, [About Us](#), no date

³⁴ Arab News, [Ancient monastery stands witness to Bangladesh's rich Buddhist past](#), 11 Jan 2024

³⁵ Ei Samay, [About Us](#), no date

... 한 추정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는 힌두 305명당 1개소의 사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즈샤히(Rajshahi), 제소르(Jessore), 라비샬(Ravishal), 치타공(Chittagong), 쿨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다수의 오래된 사원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다케슈와리 사원(Dhakeshwari Temple)이 방글라데시 최대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³⁶

- 7.2.10 미얀마 출신 이주민인 로힝야 무슬림(Rohingya Muslims)의 방글라데시 내 소재지 관련 정보는 [국가정책정보노트, 미얀마: 로힝야\(방글라데시 로힝야 포함\)](#)를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8. 법적 배경

8.1 헌법

- 8.1.1 [방글라데시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2A조 국교: 방글라데시 공화국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국가는 힌두교, 불교, 기독교 및 기타 종교의 신앙 활동에 있어 평등한 지위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 제12조 세속주의와 종교의 자유:
다음 항목을 배제함으로써 세속주의 원칙을 실현한다.
 - (a) 모든 형태의 공동체주의
 - (b) 국가가 특정 종교에 유리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 (c) 정치적 목적을 위한 종교의 악용
 - (d)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 대한 차별 또는 박해...
- 제28조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1) 국가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또는 출생지만을 이유로 시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여성은 국가 및 공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3) 모든 시민은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또는 출생지만을 이유로 공공 오락 시설이나 휴양지 출입 또는 교육기관 입학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 의무, 제한 또는 조건을 부과 받지 아니한다.
 - (4)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가 여성이나 아동, 또는 소외된 시민 계층의 발전을 위한 특별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종교의 자유:
 - (1) 법률, 공공질서 및 도덕적 규범에 따라 –
 - (a) 모든 시민은 종교를 신봉하고, 실천하거나,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 (b) 모든 종교 공동체 또는 교파는 해당 종교 기관을 설립, 유지,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³⁶ Ei Samay, [How many Hindu temples are there in Bangladesh](#), 20 February 2024

(2)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어떠한 자도 자신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관련된 종교 교육을 받거나 해당 종교의식 또는 예배에 참여 또는 참석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³⁷

- 8.1.2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2023년 8월 24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방글라데시 이해관계자 제출 서류 요약문(OHCHR 2023 report)을 발간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 ADF)은 방글라데시 헌법이 세속주의를 확립하고 종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결사, 사상, 양심,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다양한 형사법이 해당 자유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³⁸

[목차로 돌아가기](#)

8.2 형법

- 8.2.1 방글라데시「1860년 형법(Penal Code 1860)」 제15장은 종교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다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295조) 특정 종교를 모욕할 의도로 종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특정 집단의 종교를 모욕할 의도를 가지거나, 특정 집단이 그 파괴, 훼손 또는 모독 행위를 해당 종교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할 것임을 알면서도 예배 장소 또는 특정 집단이 신성시하는 대상을 파괴, 훼손 또는 모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
- (제295A조)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여 특정 집단의 종교적 감정을 해치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 방글라데시 특정 시민 집단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두, 서면, 또는 시각적 묘사를 통하여 그 집단의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거나 모욕하려고 시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
- (제296조) 종교 집회 방해: 종교적 예배나 종교의식을 거행 중인 적법한 집회에서 고의로 소란을 야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
- (제297조) 매장지 등에 대한 무단 침입: 특정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종교를 모욕할 의도로, 또는 특정인의 감정이 상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 특정인의 종교가 모욕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예배 장소 또는 매장지, 또는 장례 의식을 수행하거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에 무단 침입하거나, 시신에 모욕적 행위를 가하거나, 장례식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소란을 야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

³⁷ GoB,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November 1972

³⁸ OHCHR, [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on Bangladesh](#) (paragraph 14), 24 August 2023

- (제298조)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로 하는 발언 등: 특정인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할 고의적 의도로 해당인이 듣는 곳에서 말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해당인이 보는 곳에서 동작을 취하거나, 물체를 놓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³⁹

8.2.2 미국 국무부는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방글라데시 형법에 따라 종교적 정서를 모욕하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행해진 발언이나 행위는 벌금 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한다. 형법은 이러한 금지된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또한 형법은 정부가 시민 사이에 적개심과 증오를 조장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비하하는 언어가 포함된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의 모든 사본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률은 온라인 출판물에도 유사한 제한을 적용한다.⁴⁰

신성모독 부분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8.3 신성모독/종교적 명예훼손

8.3.1 미국 국무부는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별도의 신성모독법은 없지만, 당국은 이슬람을 비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 형법과 「정보통신기술법(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ICTA)」 및 「디지털 보안법(DSA)」의 조항을 적용하여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법(ICTA)」은 ‘음란물’, ‘법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종교적 정서를 해치는 발언’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표현을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디지털 보안법(DSA)」은 ‘종교적 가치나 정서를 해치는 모든 정보’의 출판이나 방송을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⁴¹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디지털 보안법(DSA)」 위반으로 인한 체포 건수나 빈도에 관한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했다. 상세 내용은 [이슬람 모독 관련 체포 및 기소](#)와 [국가의 처우: 힌두](#)를 참조한다.

8.3.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3년 보고서(OHCHR 2023 report)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공동보고서 JS9(Joint Submission 9, JS9)[인도 뭄바이(Mumbai, India) 남아시아 종교 신념 자유 포럼(South Asia Forum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SAFFoRB), 방글라데시 다카(Dhaka, Bangladesh)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 공동 제출]와 공동보고서 JS16(Joint Submission 16, JS16)[스웨덴 그노셰(Gnosjo, Sweden) 셋 마이 피플 프리(Set my people free), 미국 버지니아 주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 미국 버지니아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 공동 제출]은 종교적 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성모독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³⁹ GoB, [The Penal Code of 1860](#), 6 Oct 1860

⁴⁰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⁴¹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공동보고서 JS16은 신성모독 금지법의 폐지와 난민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과 유럽법률사법센터(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ECLJ)는 기독교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에 우려를 표하며 종교적 관용 증진을 촉구했고, 아울러 종교적 자유의 존중, 신성모독법 폐지, 종교 간 대화 및 관용 증진을 권고했다.⁴²

8.3.3 2023년 9월 18일 「2023년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Act 2023, CSA 2023)」이 제정되고 기존의 「2018년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2018, DSA 2018)」은 폐지되었다.⁴³

8.3.4 2024년 8월 8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는 방글라데시의 「사이버 보안법(CSA)」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법 제28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종교적 가치나 정서를 훼손하는 웹사이트 또는 전자 형식 정보의 출판, 방송 등. (1) 개인 또는 집단이 종교적 정서나 가치를 해치거나 도발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웹사이트나 전자 형식으로 종교적 정서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출판 또는 방송하거나 이를 출판 또는 방송하게 한 경우, 해당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만 방글라데시 타카(3,187 영국 파운드⁴⁴) 이하 또는 이를 병과받을 수 있다.⁴⁵ 해당 법률의 [벙골어](#) 전문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8.3.5 국제앰네스티(AI)는 동일한 보고서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이버 보안법(CSA)」은 ‘종교적 가치나 정서를 해치는’ 모든 발언을 범죄화하는 「디지털 보안법(DSA)」 제28조를 자구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모호한 범죄 성립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요건은 해당 행위가 종교적 가치나 정서를 해치거나 도발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뿐이다. 식민지 시대인 1860년 제정된 「1860년 형법(Penal Code 1860)」 제295A조 또한 ‘종교적 감정을 해칠 의도로 행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 조항을 두고 있으나, 법원은 정부의 명령이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해당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형법(Penal Code)」 제295A조에 따라 제기된 사건 수는 「디지털 보안법(DSA)」과 「사이버 보안법(CSA)」 제28조에 의거해 제기된 사건 수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⁴⁶

8.3.6 국제앰네스티(AI)는 동일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심한 불쾌감을 주는 발언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은 ‘차별, 적대 또는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증오 옹호 행위’에 해당하는 좁은 범주의 표현에 대해서만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반드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법(CSA)」 제28조는 선동에 관한 이러한 좁은 예외 범주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제31조를 개정하여 다룰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제28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⁴² OHCHR, [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on Bangladesh](#) (paragraph 14), 24 August 2023

⁴³ GoB, [Cyber Security Act 2023](#), 18 September 2023

⁴⁴ Xe.com, [500,000 BDT to GBP - Convert Bangladeshi Takas to British Pounds](#), 25 March 2025

⁴⁵ AI, [Bangladesh: Repackaging Repression...](#), 8 August 2024

⁴⁶ AI, [Bangladesh: Repackaging Repression...](#), 8 August 2024

「사이버 보안법(CSA)」 제28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및/또는 벌금 100만 방글라데시 타카(8,512 미국 달러)(6,354 영국 파운드⁴⁷)에서 최대 징역 2년 및/또는 벌금 50만 방글라데시 타카(4,256 미국 달러)(3,187 영국 파운드⁴⁸)로 경감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보호받아야 할 발언을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⁴⁹

8.3.7 2024년 11월 1일 ‘...부당함의 폭로, 부당 구금자의 석방 지원 및 세계 법치주의 증진’⁵⁰을 사명으로 하는 클루니정의재단(Clooney Foundation for Justice, CFJ)의 트라이얼워치 이니셔티브(TrialWatch initiative)는 ‘...방글라데시의 독립 비영리 싱크탱크이자 연구기관...’⁵¹인 거버넌스 연구 센터(Centre for Governance Studies)와 함께 구 「2006년 정보통신기술법(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2006, ICT 2006)」 및 「디지털 보안법(DSA)」 관련 소송 사례를 분석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구 「정보통신기술법(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ct)」에 근거해 제기된 소송들이, 심지어 이미 폐지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⁵²

8.3.8 클루니정의재단(CFJ)의 트라이얼워치 이니셔티브(TrialWatch initiative)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방글라데시 임시정부는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며 「사이버 보안법(CSA)」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3개 사이버 법률에 따라 계류 중인 모든 사건을 ‘언론 범죄’(온라인 발언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컴퓨터 범죄’(해킹 또는 디지털 사기 등)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언론 범죄 관련 소송을 취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정부는 해당 소송들의 구체적 취하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⁵³

8.3.9 2025년 3월 29일 ‘...방글라데시 국영 통신사...’⁵⁴ 방글라데시 상바드 상스타(Bangladesh Sangbade Sangstha, BSS)는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 취하에 관한 최근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8개 행정구역 내 사이버 재판소에 접수된 총 410건의 사건이 폐기되었다. 「사이버법(Cyber Act)」에 따라 폐기된 사건의 지역별 분포는 다카 구역 21건, 치타공 구역 130건, 실렛 구역 103건, 쿨나 구역 53건, 바리살(Barisal) 구역 48건, 랑푸르(Rangpur) 구역 40건, 마이멘싱 구역 13건, 라지샤히(Rajshahi) 구역 2건 등이다. 방글라데시 임시정부의 법무·사법·의회 담당 고문인 아시프 나즈룰(Asif Nazrul) 교수는 사이버법 위반 혐의 중 의견 표명, 즉 발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 취하되고 있다고 밝혔다.⁵⁵

8.3.10 「사이버 보안법(CSA)」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 임시정부는 「2023년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Act 2023, CSA 2023)」을 대체하기 위해 「2025년 사이버 보호 조례(Draft Cyber Protection Ordinance 2025)」를 제출했다. 2025년 2월 3일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 운동을 추진하는 실천형 국제 싱크탱크’⁵⁶인 아티클 19(Article 19)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⁴⁷ Xe.com, [1,000,000 BDT to GBP - Convert Bangladeshi Takas to British Pounds](#), 25 March 2025

⁴⁸ Xe.com, [500,000 BDT to GBP - Convert Bangladeshi Takas to British Pounds](#), 25 March 2025

⁴⁹ AI, [Bangladesh: Repackaging Repression...](#), 8 August 2024

⁵⁰ CFJ,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of 2006...](#), 1 November 2024

⁵¹ CFJ,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of 2006...](#), 1 November 2024

⁵² CFJ,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of 2006...](#)(page 1), 1 November 2024

⁵³ CFJ,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of 2006...](#) (page 16), 1 November 2024

⁵⁴ BSS News, [BSS Profile](#), no date

⁵⁵ BSS News, [410 cases over 'speech-based' offences under cyber laws scrapped](#), 29 March 2025

⁵⁶ Article 19, [About us](#), no date

「2025년 사이버 보호 조례(Cyber Protection Ordinance 2025)」는 방글라데시 내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언론인, 변호사, 교사, 인권 운동가 및 활동가들은 조례안에 사용된 많은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모호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입법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임시정부는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단 3일만 부여했었다.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정부는 정보통신기술부(ICT Division) 웹사이트에 수정 조례안을 게시하고 2025년 1월 22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의 절차를 재개했다.

그러나 새로 승인된 초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았던 이전 법률의 여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⁵⁷

- 8.3.11 「사이버 보안 조례(Cyber Security Ordinance Act)」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아티클 19(Article 19)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제26조는 증오를 확산시킬 의도가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 출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권리보다는 종교적 가치 또는 정서를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증오(hate)'와 같이 모호한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정당한 비판 및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있어 이러한 조항들은 소수자 집단, 언론인, 활동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불균형하게 적용되어 왔다. 또한, 이 조항은 '증오를 확산시킬 의도'를 가진 발언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이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 관행, 제도, 정책에 대한 논의나 비판을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는 열린 대화를 저해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⁵⁸

[목차로 돌아가기](#)

8.4 신분관계법

- 8.4.1 호주 외교통상부(DFAT) 2022년 방글라데시 보고서는 가족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혼인, 이혼, 상속 및 입양에 관한 가족법은 무슬림, 힌두, 기독교도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모든 종교 공동체에 대한 재판은 동일한 세속 법원이 관할한다. 다종교 가정이나 이슬람, 힌두교 또는 기독교 이외의 신앙을 가진 자를 위한 별도의 민사 가족법이 있다.⁵⁹
- 8.4.2 독일 민간 재단인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은 국가별 전문가를⁶⁰ 통해 127개국의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로의 전환 수준과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하는 '2024년 변혁 지수(Transformation Index 2024) 방글라데시 국가 보고서(BTI 2024 Bangladesh report,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방글라데시의 사법 체계는 대체로 세속적이며 영국 식민지 법률을 계승하고 있다. 다만 혼인 및 재산 상속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만은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⁶¹

⁵⁷ Article 19, [Bangladesh: ARTICLE 19 urges consultation on Draft Cyber Protection...](#), 3 Feb 2025

⁵⁸ Article 19, [Bangladesh: ARTICLE 19 urges consultation on Draft Cyber Protection...](#), 3 Feb 2025

⁵⁹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35), 30 November 2022

⁶⁰ BTI, [Methodology](#), no date

⁶¹ BTI, [BTI 2024 Country Report: Bangladesh](#) (p7), 19 March 2024

- 8.4.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3년 보고서(OHCHR 2023 report)는 방글라데시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는 소수자들의 숙원이었던 차별금지법안(Anti-Discrimination Bill)이 2022년 4월 방글라데시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임을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될 경우 성별, 종교, 민족, 출생지, 카스트, 직업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 금지되며, 차별 피해자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진정 절차 또한 도입될 것이다.⁶² 국가정책정보팀(CPIT)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이 차별금지법안은 여전히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8.4.4 미국 국무부는 국제인권수호단체(HRDI)에서 방글라데시 가족 및 민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혼인, 이혼 및 입양에 관한 가족법은 무슬림, 힌두교도, 기독교도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은 각 종교별로 적용되나, 그 집행은 세속 법원이 관할한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가족이나 타종교인 또는 무교인들에게는 별도의 민사 가족법이 적용된다. 혼인 당사자 쌍방의 종교에 따른 가족법이 해당 혼인 의식과 절차를 규율한다. 또한, 힌두교도 남성은 복수의 아내를 둘 수 있는 반면, 기독교도 남성은 오직 한 명의 여성과만 결혼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힌두교도에게는 이혼 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나, 비공식적인 이혼 사례는 존재한다. 가족법상 힌두교도 여성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혼한 힌두교도와 불교도는 법적으로 재혼할 수 없으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적 재혼은 이루어지고 있다. 힌두교 또는 불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이혼 또는 사별한 남녀는 재혼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종교 집단 구성원 간의 결혼은 민법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무슬림의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결혼식을 집전하는 성직자가 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일부 무슬림의 혼인은 신고되지 않고 있다.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의 혼인신고는 선택 사항이며, 실제로 드물고, 기타 종교는 자체 지침을 따를 수 있다.⁶³

- 8.4.5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에 의하면, “무슬림 가족 조례(Muslim family ordinance)하에서 무슬림 남성은 아브라함계(Abrahamic) 신앙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지만, 무슬림 여성은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다.”⁶⁴

- 8.4.6 동일한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힌두교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023년 5월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정부 측에 이혼, 후견인 자격 및 평등한 재산 상속에 관한 힌두 여성의 권리 침해가 위헌이 아닌 이유를 정부가 소명하도록 명령했다. 위헌 심판을 제기한 청구인 측 변호사는 헌법이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출생지와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도 여성이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도 활동가들과 힌두교도 여성 단체들은 힌두교도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힌두교도 가족법 개혁 운동을 지속했다.⁶⁵

8.4.7 아흐마드 나시르 모하드 유소프(Ahmad Nasir Mohad Yusoff)와 AHM 샤피쿨 이슬람(AHM Shafiqul Islam)은 2024년 11월 23일 『경영·사회 과학 학술 연구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에 발표한 논문 「방글라데시의 법체계: 세속법과 이슬람법의 이중성(The Legal System of Bangladesh: The Duality of Secular and Islamic Laws)」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⁶² OHCHR, [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on Bangladesh](#) (paragraph 18), 24 August 2023

⁶³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⁶⁴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⁶⁵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방글라데시의 법체계는 세속법이 공공 영역을 규율하고, “이슬람법이 주로 무슬림의 개인 및 가족 문제에 적용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여러 영역에 걸쳐 일관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⁶⁶

[목차로 돌아가기](#)

8.5 종교단체 등록

8.5.1 미국 국무부는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개별 종교 시설은 정부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복수의 종교 시설을 가진 협회를 구성하려는 종교 단체는 개발 사업을 위한 해외 원조를 받는 경우 총리실 산하 비정부기구 업무국(NGO Affairs Bureau, NGOAB)에,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방글라데시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에 비정부기구(NGO)로 등록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비정부기구 업무국(NGOAB)은 모든 외국 자금 지원 사업을 승인하고 감독해야 한다. 비정부기구 업무국장은 법률을 위반한 비정부기구(NGO)에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으며, 제재에는 해외 기부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또는 해당 비정부기구(NGO)의 폐쇄가 포함된다. 또한 헌법이나 헌법 기관 즉, 정부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해외 기관의 해외 기관의 주재원은 방글라데시 국가보안정보국(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경찰 특별지부(Special Branch of Police), 국군정보사령부(Directorate General of Forces Intelligence)로부터 보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종교 단체의 등록 요건 및 절차는 세속 단체와 동일하다. 사회복지부에 등록하려는 단체는 신청 명칭이 중복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의 내규 및 정관, 국가보안정보국 발급 단체 대표의 보안 허가 확인서, 집행위원회 선임 관련 회의록, 전체 집행위원 및 일반 회원의 명부와 주요 임원의 사진, 사업 계획서, 단체 사무실의 소유권 증서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재산 목록, 예산서, 지방정부 관계자의 추천서 등. 비정부기구 업무국(NGOAB)에 등록하는 종교 단체의 요건 또한 이와 유사하다.⁶⁷

[목차로 돌아가기](#)

8.6 종교 개종

8.6.1 호주 외교통상부의 2022년 보고서(DFAT 2022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개종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으나,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물리적 위해를 받을 수 있어 개종에는 위험이 따른다.”⁶⁸

8.6.2 사회적 처우: 기독교도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9.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

9.1.1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다룬 미국 국무부 202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USSD 2023 Human Rights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어떠한 법률도...소수자 구성원의 정치 과정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며, 실제로 소수자 구성원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했다.”⁶⁹

⁶⁶ Yusoff, A N M, Islam, A S, [The Legal System of ...](#) (page 1,979) 23 November 2024

⁶⁷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⁶⁸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36), 30 November 2022

⁶⁹ USSD, [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Bangladesh](#) (section 3), 22 April 2023

9.1.2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종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든 공립 및 정부인가 학교의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교육 과정에서 종교학은 필수 과목이다. 반면 사립 학교에는 이러한 필수 이수 요건이 없다.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학생은 각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을 받지만, 교사가 항상 학생과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다. 주방글라데시 교황청 대표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육 기관으로 약 270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⁷⁰

9.1.3 동일 보고서는 종교인 수감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교도소 규정에 따라 수감자는 종교적 기념일을 지킬 수 있으며,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 독립기념일 등 특정 국경일이나 종교 공휴일에 추가 음식을 제공받거나 종교적 이유로 금식하는 것이 허용된다. 법률상 수감자에게 성직자와의 정기적 접견이나 정기적인 종교의식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도소 당국은 수감자들을 위한 특별 종교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 당국은 사형 집행 전, 사형수가 본인이 선택한 종교의 성직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⁷¹

9.1.4 유럽연합 선거전문가임무단(European Union Election Expert Mission, EU EEM)의 2024년 1월 방글라데시 선거 보고서는 소수자 공동체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재산 파괴 등 정치 활동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수많은 장애에 직면해 있다”⁷²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종교적 소수자 출신 대표자들의 세부 현황이나 소수자가 직면한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9.1.5 현재 진행 중인 정부 개혁에 종교적 소수자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 신문⁷³ 프로툼 알로(Prothom Alo)는 2024년 10월 24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헌법과 사법부를 포함한 6개 분야의 개혁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들은 포용적이지 않다. ... 종교적·민족적 소수자 공동체의 대표가 전혀 없다. ... 차크마 서클(Chakma Circle)의 대표인 라자 데바시시 로이(Raja Debashish Roy)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위원회 내 민족적 및 종교적 소수자 대표가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라자 데바시시 로이는 2024년 10월 13일 게시물에서 “개혁위원회에는 부족 집단, 종교적 소수자, 여성, 그리고 기타 소외 계층 또는 취약 계층의 대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 이는 노벨상 수상자가 이끄는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고 밝혔다.

⁷⁰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⁷¹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⁷² EU EEM, [European Union Election Expert Mission Bangladesh...](#) (page 16), 7 Jan 2024

⁷³ Prothom Alo, [About Us](#), no date

... 개혁위원회의 대표성 부재와 관련하여, 임시정부 고문은 프로툼 알로(Prothom Alo)에 위원회가 시민사회, 소수자 대표, 정당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권고안이나 제안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⁷⁴

[목차로 돌아가기](#)

10 국가의 입장

10.1 정부의 입장과 정책

- 10.1.1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방글라데시 토지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방글라데시 정부가 토지 반환 문제에 있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모든 사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 소수민족에 속하기도 하는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및 기타 소수자 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재산 및 토지 소유권 분쟁과 강제 퇴거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정부가 연루된 사건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례들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이러한 분쟁과 퇴거 조치가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 차별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행정적 비효율성 때문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⁷⁵

- 10.1.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2023년 8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동보고서 JS9(Joint Submission 9)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특정 정책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⁷⁶

- 10.1.3 국제인권보호단체(HRDI) 보고서는 “정당들이 지지 기반을 결집하기 위해 종교적 정서를 악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정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⁷⁷

- 10.1.4 국제 뉴스 통신사 프레센자(Pressenza)는 2024년 12월 12일 다카 대학교(University of Dhaka) 조교수 타님 자심(Tanim Jasim)이 작성한 기고문 「방글라데시, 종교 화합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가?(Is Bangladesh Living Up to Its Promise of Religious Harmony?)」를 게재했다. 해당 기고문은 “방글라데시는 모든 신앙인의 공동 발전(collective progress)에 주력해 왔다. 정부는 다양한 공동체의 종교·문화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소수자 권리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임시정부는 종교적 화합(religious harmony)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제 무대에서 방글라데시가 평화적 공존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기술했다.⁷⁸

- 10.1.5 프레센자(Pressenza)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타레크 엠디 아리풀 이슬람(Tareq Md Ariful Islam) 대사는 소수자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방글라데시 거버넌스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긴장 사태가 종파적 갈등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나, 정부는 종교적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⁷⁹

⁷⁴ Prothom Alo, [Reform commissions: Less women, no members of the...](#), 24 October 2024

⁷⁵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⁷⁶ OHCHR, [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on Bangladesh](#) (paragraph 27), 24 August 2023

⁷⁷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⁷⁸ Pressenza, [Is Bangladesh Living Up to Its Promise of Religious Harmony?](#), 12 December 2024

⁷⁹ Pressenza, [Is Bangladesh Living Up to Its Promise of Religious Harmony?](#), 12 December 2024

10.1.6 2024년 11월 9일 프로툼 알로(Prothom Alo)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육군 참모총장 와케르-우즈-자만(Waker-Uz-Zaman) 장군은 금요일, 무슬림, 힌두, 불교도, 기독교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 아름다운 방글라데시를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만 총장은 전국 각지의 불교 신자들이 다카 메룰 바다(Merul Badda)에 있는 국제 불교 사원에 모인 것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군이 지난 두르가 푸자(Durga Puja) 기간에도 치안을 지원하여 축제가 훌륭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에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지원과 협력은 무엇이든 제공할 것입니다."⁸⁰

10.1.7 2024년 12월 4일 다카 트리뷴(Dhaka Tribune)은 임시정부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임시정부 수석 고문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교수는 종교, 카스트,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모든 국민은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요일 오후 다카 외교원(Foreign Service Academy)에서 개최된 다양한 종교 공동체 지도자와의 회의에서 "우리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했다.

유누스 고문은 소수자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가감 없고 진실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문했다.

그는 또한 "정보 제공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의에서 유누스 고문은 평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의 구성원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대해 소회를 밝히며, 취임 직후 다케슈와리 국립 사원(Dhakeshwari National Temple)을 방문하여 공동체의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핵심 요구는 평등이었습니다. 즉, 발언할 권리, 종교를 실천할 권리, 그리고 일할 권리였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서 명시된 것이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연설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모두에게 평등과 정의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글라데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종교 공동체 지도자와의 회의에는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및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토착 산악 부족의 대표들이 참석했다.⁸¹

10.1.8 2024년 8월 13일 기준, 전체 경찰서 639개소 중 634개소가 운영을 재개했으며, 이에는 광역 경찰서 110개 전 개소와 지구 경찰서 529개소 중 524개소가 포함되었다.⁸² 2024년 9월 20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사적 제재 행위(mob justice)'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는 처벌할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83 84}

⁸⁰ Prothom Alo, [Muslim, Hindu, Buddhist, Christian, all want to build a beautiful...](#), 9 Nov 2024

⁸¹ Dhaka Tribune, [Yunus to religious leaders: We are not each other's enemies](#), 4 December 2024

⁸² Business Standard, [Major reshuffle in police high-ups](#), 13 August 2024

⁸³ Dhaka Tribune, [Police HQ: Stern actions to be taken for taking...](#), 20 September 2024

⁸⁴ Business Standard, [Police to take stern actions against anyone taking law...](#), 20 September 2024

- 10.1.9 2024년 9월 14일 다카에 본사를 둔⁸⁵ 뉴스 매체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는 종교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에 대해 방글라데시 임시정부가 밝힌 입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임시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피 성지 및 영묘(mazars) 공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다.⁸⁶
- 10.1.10 2025년 3월 12일 남아시아 유력 멀티미디어 뉴스 통신사인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sian News International, ANI)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⁸⁷ 2025년 3월 18일 방글라데시와 그 외 지역의 인권 보호에 전념하는 비영리 인권 단체인 프랑스 저스티스메이커스 방글라데시(JusticeMakers Bangladesh in France, JMBF)가 성명을 발표했다.⁸⁸ 이 성명은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임시 총리 재임 기간 중 종교적 소수자와 토착민 공동체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지속적 폭력과 조직적 박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⁸⁹
- 10.1.11 2025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사실조사 보고서(OHCHR FF 2025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관련 정당의 중앙 지도부에 의해 기획되거나 조직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도부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조치를 취했다.⁹⁰
- 10.1.12 2025년 5월 2일 BBC 모니터링(BBC Monitoring)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방글라데시 주영국 고등판무관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은 영국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투명성과 책무성, 그리고 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한 임시정부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지난 2025년 4월 30일 방글라데시 초당적 의회 그룹(All-Party Parliamentary Group, APPG) 연설에서 이슬람 고등판무관은 정부는 소수자 대상 폭력 사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참관단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동체에 대한 종교의 자유와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조했다.”⁹¹

[목차로 돌아가기](#)

11. 국가의 처우

이 장에서는 소수자 종교 단체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 출처는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지칭하나, 각 집단이 겪는 경험은 다를 수 있다.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이하 항목에서 각 집단의 처우를 개별적으로 참고하여 고려하고자 한다.

11.1 일반

- 11.1.1 2023년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방글라데시 종교 자유 보고서(ACN 2023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Report)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일반적으로 아와미 연맹(AL) 정부는 사회 및 정치 전반에서 이슬람주의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종교적 소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한 사회·시민적 입지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와미 연맹(AL)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반발로, 이슬람 무장세력은 세속적 성향의 블로거, 인권 활동가, 그리고 힌두교도 및 기독교도를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폭력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⁸⁵ Business Standard, [About Business Standard](#), no date

⁸⁶ Business Standard, [Govt condemns attacks on shrines, vows to take strict actions](#), 12 Sept 2024

⁸⁷ ANI News, [About Asian News International](#), no date

⁸⁸ JMBF, [About us](#), no date

⁸⁹ JMBF, [Press & Public Statement: JMBF Strongly Condemns the Continuous...](#), 18 March 2025

⁹⁰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iii), 12 Feb 2025

⁹¹ BBC-M, Bangladesh reaffirms commitment to protecting minority rights, 2 May 2025

이러한 공세는 지난 10년간 소강과 격화를 거듭해 왔으나, 최근 2년 들어 더욱 잔혹하고 격렬해졌다.⁹²

11.1.2 국제인권보호단체(HRDI)는 “방글라데시 불교도 및 기독교도 공동체는 사회정치적 대표성과 자원 접근성 측면에서 특유의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⁹³

11.1.3 국제인권수호단체(HRDI)는 토지 권리와 관련하여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종교적 소수자가 소유한 토지와 재산을 수탈하여 매각하는 행위이다. 이 문제는 복잡한 법적 분쟁과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심화되어 소수자 공동체가 자산을 환수하거나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종교적 소수자는 부실한 기록 관리나 편향된 법적 절차로 인해 소유권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와 사법 절차의 지연은 해당 공동체의 취약성을 가중시켜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⁹⁴

11.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5년 사실조사 보고서(OHCHR 2025 FF report)에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 차별반대학생회(Students against Discrimination) 지도부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석 고문(Chief Advisor of the Interim Government) 모두 폭력 사태를 규탄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⁹⁵

11.1.5 2025년 1월 임시정부의 강경파 이슬람 집단 관리 조치와 관련하여 아시아가톨릭뉴스(Union of Catholic Asian News, UCA News)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방글라데시 유누스 행정부는 방글라데시 국가 기관의 민주적 체제와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유누스 행정부는 이슬람 광신주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년간 하시나 정권에서 억압받던 급진주의 집단이 현재 종교적 소수자와 진보주의 무슬림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⁹⁶

[목차로 돌아가기](#)

11.2 이슬람 모독에 대한 체포 및 기소

11.2.1 미국 국무부 2023년 방글라데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종교적 소수자 공동체 지도자들은 「디지털 보안법(DSA)」과 같은 법률이 무슬림 주민들의 ‘종교적 정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 특히 힌두교도를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에 무슬림을 모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를 게시한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보복 폭력의 가해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⁹⁷

11.2.2 2023년 5월 10일 다카의 영자 일간지 뉴 에이지(New Age) 및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에 따르면, 2023년 5월 다카 사이버 재판소(Dhaka Cyber Tribunal)는⁹⁸ 베굼 바드룬네사 국립 여자 대학(Begum Badrunnesa Govt Girls' College) 학생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했다. 이 학생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체포된 후 「디지털 보안법(DSA)」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⁹² ACN, [Religious Freedom Report 2023: Bangladesh](#), June 2023

⁹³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⁹⁴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⁹⁵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56), 12 Feb 2025

⁹⁶ UCA News, [Bangladeshi Sufi shrine drops devotional music over Islamist threat](#), 31 January 2025

⁹⁷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ection 2), 26 June 2024

⁹⁸ New Age, [About Us](#), no date

학생은 유죄를 인정하고 게시물에 대해 사과했다.⁹⁹ ¹⁰⁰ 상기 두 출처 모두 피고인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으며, 「디지털 보안법(DSA)」은 모든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해당 법이 종교적 소수자에게 특정하여 적용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11.2.3 2023년 5월 23일 뉴 에이지(New Age)는 이슬람을 '비하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처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 남성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슬람과 예언자를 비하한 것이 발단이 되어 2017년 11월 10일 랑푸르 지구 타쿠르파라(Thakurpara)의 힌두교 마을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화요일, 랑푸르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티투 레이(Titu Ray)에게 벌금 5만 방글라데시 타카(318 영국 파운드¹⁰¹)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징역 5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티투 레이는 방화 관련 기소가 이루어진 2건의 사건 중 1건의 사건에서 「정보통신기술법(ICT)」 제57조 위반으로 기소된 유일한 피고인이었다.”¹⁰²

- 11.2.4 2023년 5월 24일,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는 티투 레이가 힌두교 청년이라고 보도했다.¹⁰³

- 11.2.5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2023년 5월, 법원은 2017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슬람과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하한 혐의로 티투 레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기술했다.¹⁰⁴

티투 레이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보호 및 사회적 처우: 힌두교도’를 참조.

- 11.2.6 2024년 3월 16일 아시아가톨릭뉴스(UCA News)는 「사이버 보안법(CSA)」에 따라 종교적 정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의 보석 심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의 판사 2인은 의회가 사형 처벌 조항을 포함한 신성모독 금지법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지난 3월 12일, 2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종교적 정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셀림 칸의 보석 심리 중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20세의 이 무슬림 청년은 지난 11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와 꾸란을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사이버 보안법(CSA)」에 따라 종교적 정서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칸은 250만 방글라데시 타카(15,891 영국 파운드 ¹⁰⁵)의 은행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판사들은 법정에서 꾸란의 구절을 낭독하며 세계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조차 경전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칸의 모욕적 발언을 질책했다.

부검찰총장 AKM 아민 우딘(AKM Amin Uddin)은 “재판부는 종교적 정서의 훼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원했으며, 의회에 사형 및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¹⁰⁶

⁹⁹ New Age, [Badrunnessa student jailed in DSA case](#), 10 May 2023

¹⁰⁰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¹⁰¹ Xe.com, [50,000 BDT to GBP - Convert Bangladeshi Takas to British Pounds](#), 25 March 2025

¹⁰² New Age, [Rangpur man jailed for 10 years for defaming Islam](#), 23 May 2023

¹⁰³ The Business Standard, [Hindu youth gets 10 years' jail for anti-Islam comments](#), 24 May 2023

¹⁰⁴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¹⁰⁵ Xe.com, [2,500,000 BDT to GBP - Convert Bangladeshi Takas to British Pounds](#), 25 March 2025

¹⁰⁶ UCA News, [Proposal for blasphemy law raises eyebrows in Bangladesh](#), 16 March 2024

- 11.2.7 2024년 4월 29일, '...성 비오 10세 사제회 통신사...' ¹⁰⁷인 FSSPX 뉴스(Priestly Society of St.Pius X News, FSSPX News)는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23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은 20세 무슬림 남성 셀림 칸에 관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무분별한 비난의 표적이 된 이 용의자는 페이스북에서 이슬람 창시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들은 현재 ‘이슬람에 대한 신성모독’ 죄를 처벌하기 위해 사형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¹⁰⁸
- 11.2.8 2024년 6월 10일 국제앰네스티(AI)는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셀림 칸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무신론자 블로거이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무신론자들의 비공개 페이스북 집단 일원으로서 사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이 그의 댓글을 캡처하여 공개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대중의 소요를 야기했다. 이에 집권당 소속 인사가 ‘새로 제정된 「사이버 보안법(CSA)」과 「형법(Penal Code)」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2023년 11월 4일 셀림은 체포되었다. 이는 보석 허가 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이 반복적으로 기각되었다. 2024년 3월 13일 마침내 보석이 허가되었으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그는 여전히 수감 상태이다. 셀림은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¹⁰⁹ 국제앰네스티(AI)는 셀림을 무신론자로 분류했으나, 일부 다른 정보원들은 그를 무슬림으로 분류했다.”
- 11.2.9 일부 정보원들에게 문의했지만, 국가정책정보팀(CPIT)은 셀림 칸의 구금 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참고문헌 참조).
- 11.2.10 2024년 12월 14일 다카 트리뷴(Dhaka Tribune)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24년 12월 3일 도와라바자르(Dowarabazar) 경찰서 관할 몽글라르가온(Monglargaon) 마을의 20세 청년 아카시 다스(Akash Das)가 페이스북에 이슬람을 비판하는 모욕적 게시물을 게시했다. 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캡처 화면이 유포되면서 지역 사회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첩보를 입수한 도와라바자르 경찰은 같은 날 아카시 다스를 구금했다. 그러나 일부 군중이 경찰에 구금된 아카시 다스를 구출하려 시도했다. ¹¹⁰ 이 사건에 관한 정보는 ‘보호 및 사회적 처우: 힌두’를 참조한다.”
- 11.2.11 2024년 4월 30일 발간된 방글라데시의 극심한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 보고서(2023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방문 결과 포함)에서는 종교적 정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특별보고관은 종교적 정서 훼손 등 적용 기준이 모호한 범죄 혐의로 개인을 체포하는 데 있어, 「디지털 보안법(DSA)」이 자의적이고 우려스럽게 적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¹¹¹
- 11.2.12 2025년 2월 26일 발간된 프리덤하우스 2024년 보고서(Freedom House report, FH report 2024) ¹¹²는 2024년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내외부 분석가가 뉴스 기사부터 현장 조사에 이르는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작성했다. 프리덤하우스 2024년 보고서(FH report 2024)는 종교적 자유와 관련하여, ‘종교적 소수자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으나, 때때로 포교 활동이나 신성모독 혐의로 인해 법적 제재에 직면하기도 한다...’ ¹¹³고 기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적 소수자가 포교나 신성모독 혐의로 법적 제재를 받았는지, 혹은 그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¹⁰⁷ FSSPX. News, [About us](#), no date

¹⁰⁸ FSSPX. News, [Bangladesh: Political Islam Asserts Itself](#), 29 April 2024

¹⁰⁹ Amnesty International, [Urgent Action: Blogger Arbitrarily Detained Despite Bail](#), 10 June 2024

¹¹⁰ Dhaka Tribune, [4 arrested over attack on Hindu community in Sunamganj](#), 14 Dec 2024

¹¹¹ OHCH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paragraph 12), 30 April 2024

¹¹²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Research Methodology](#), no date

¹¹³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section D2), 26 Feb 2025

11.3 힌두

- 11.3.1 「디지털 보안법(DSA)」 위반 혐의로 체포된 힌두교도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12일 일간지 데일리 스타(Daily Star)는 디지털 보안법 피해자와 진범들(Victims of Digital Security Act and Real Culprits)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 대해 보도했다.

수남간지(Sunamganj) 출신의 주만 다스(Jhuman Das)는 “저는 헤파자트-에-이슬람(Hefazat-e Islam) 지도자 마문울 하크(Mamunul Haque)를 비판하고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Bangabandhu Sheikh Mujibur Rahman)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느라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보안법(DSA)」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2인, 즉 브라만바리아 출신 어부 라사라지 다스(Rasaraj Das)와 파투아칼리(Patuakhali) 출신 학생 조이데브 실(Joydev Sheel)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전 대법관 삼수딘 초두리 마닉(Shamsuddin Chowdhury Manik)은 라사라지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에 다니지 않아 페이스북 사용법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에서 마닉은 “라사라지가 어떻게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보안법(DSA)」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어떤 식으로든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독선적으로 변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법이 힌두교도 공동체를 대상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에나예트 올라 압바시(Enayet Ullah Abbasi)와 차르모나이 피르(Charmonai Pir) 같은 이슬람 성직자들은 「형법(Penal Code)」 제295조와 「디지털 보안법(DSA)」 제28조를 위반하고 반국가적·반종교적 발언을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건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¹¹⁴

- 11.3.2 정치적 소요 사태 기간 중 힌두교도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프리덤하우스 2024년 보고서(FH report 2024)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임시정부는 힌두교도 집단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폭력 사태의 대부분이 종파적 동기가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힌두교 집단은 임시정부에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¹¹⁵

- 11.3.3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2023년 2월, 법원은 2021년 소셜 미디어 게시물로 인해 제기된 「디지털 보안법(DSA)」 소송 사건에서 힌두교도 청소년 포리토시 사르카르(Poritosh Sarkar)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랑푸르 지구에 종교·집단 간 폭력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포리토시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나 공동체 간 적개심, 증오 또는 적의를 조성하거나 공동체 화합을 파괴하는’ 출판물을 범죄로 규정하는 「디지털 보안법(DSA)」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다. 지역 무슬림들은 포리토시가 종교적 정서를 훼손하는 모욕적 게시물을 올렸다고 고발했다. 해당 게시물에 반발로, 현지인 무리가 어촌 마을에 불을 질러 힌두교도들이 거주하던 가옥을 파괴했다.

¹¹⁴ The Daily Star, [“Relieve us of this nightmare”: Plead those accused in DSA cases](#), 12 June 2022

¹¹⁵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section D2), 26 Feb 2025

당국은 형법상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리토시 사르카르를 8개월간 미결구금 상태로 독방 감금했다. 포리토시 사르카르는 2022년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되었다. 교도소 측은 가족들에게 포리토시가 ‘안전을 위해’ 독방에 수감된 상태라고 해명했다.”¹¹⁶

11.3.4 2023년 2월 9일 데일리 스타는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어제 한 힌두 청소년이 「디지털 보안법(DSA)」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소송은 2021년 10월 랑푸르 지구의 피르간지(Pirganj)에 있는 힌두교도 어촌 마을 전체를 전소시킨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제기되었다.

당시 10학년생(15/16세)이었던 포리토시 사르카르는 소셜 미디어에 모욕적 게시물을 올려 “종교적 정서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경찰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이 포렌식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 포리토시가 그러한 모욕적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포리토시는 재판이 진행되는 8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었다. 랑푸르 사이버 재판소(Rangpur Cyber Tribunal)에서 세 차례나 보석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고등법원의 명령서가 발부된 후 2022년 5월 9일 마침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2월 5일, 압둘 모지드(Abdul Mojid) 판사는 판결 선고 시까지 포리토시의 재수감을 결정했다.”¹¹⁷

11.3.5 2024년 5월 30일 뉴 에이지(New Age)는 포리토시 사르카르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목요일, 고등법원은 무슬림의 종교적 정서를 훼손한 혐의로 랑푸르 피르간지 출신 포리토시 사르카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한 무함마드 아슈라ful 카말(Md Ashraful Kamal) 판사 재판부는 21세가 된 포리토시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2018년 디지털 보안법(DSA 2018)」에 따라 제기된 그의 종교적 정서 훼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은 수사당국이 힌두교도들의 가옥을 보호하지 못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디지털 보안법(DSA)」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판시했다.¹¹⁸ 힌두교도에 대한 경찰 보호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보호’를 참조한다.

11.3.6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Freedom, USCIRF)는 2025년 3월 25일에 출판된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24년 28개국의 종교 자유 침해 및 개선 사례를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¹¹⁹

2024년 11월 경찰은 힌두교 성직자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Chinmoy Krishna Das)가 힌두교도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 중 방글라데시 국기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그를 선동죄로 기소했다. 체포 후 수천 명의 다스 지지자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무슬림 변호사 한 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약 3만 명의 힌두교도가 정부에 공격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¹²⁰

11.3.7 2025년 5월 5일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 뉴스 (ANI News)는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¹¹⁶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¹¹⁷ The Daily Star, [DSA Case: Poritosh gets 5 years in jail](#), 9 February 2023

¹¹⁸ New Age, [HC scraps Paritosh Sarkar's 5-year jail for hurting religious sentiment](#), 30 May 2024

¹¹⁹ USCIRF, [2025 USCIRF Annual Report](#) (page 2), 25 March 2025

¹²⁰ USCIRF, [2025 USCIRF Annual Report](#) (page 76), 25 March 2025

“방글라데시 사나타니 자그란 조테(Bangladesh Sanatani Jagran Jote)의 대변인이자 전 국제크리슈나의식협회(ISKCON) 지도자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는 방글라데시 국기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선동 혐의에도 직면해 있다.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에게 적용된 국기 모독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 변호인단이 유리한 모든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변론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변호인단은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가 일주일 이내에 치타공 중앙 교도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친모이 측 변호인 아푸르바 쿠마르 바타차르지(Apurba Kumar Bhattacharjee)는 정부가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의 구금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에게 선동 혐의를 적용할 만한 발언이나 동기 등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언급했다.¹²¹

- 11.3.8 같은 기사에 따르면, 친모이는 보석이 허가된 후 4건의 추가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치타공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사무총장 아슈라프 호사인 라자크(Ashraf Hossain Razzak)는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ANI)과의 전화 통화에서 “치타공 재판부가 변호사인 사이풀 이슬람 알리프(Saiful Islam Alif) 피살과 관련하여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를 4개 사건의 피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26일, 치타공 법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사이풀 이슬람 알리프는 친모이 크리슈나 다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었다.”¹²²

[목차로 돌아가기](#)

11.4 불교도

- 11.4.1 국제인권수호단체(HRDI)는 ‘주로 치타공 구릉지대(CHT)에 거주하는 불교도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토지권 및 문화유산 보존 관련 문제에 직면해 왔다’고 언급했다.¹²³

- 11.4.2 2024년 10월 9일, 영문 온라인 불교 정기간행물¹²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치타공 구릉지대 내 불교 축제 취소에 대한 당국의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랑가마티 지구(Rangamati District) 행정관 모샤라프 호사인 칸(Mosharraf Hossain Khan)은 승려들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10월 7일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치타공 구릉지대(CHT)의 치안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밝혔다.¹²⁵ 추가 정보는 사회적 처우: 불교도 편을 참조한다.

- 11.4.3 참고자료 검토 결과 국가정책정보팀은 불교도에 대한 국가의 처우와 관련해 더 이상의 최신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참고문헌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11.5 기독교도

- 11.5.1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022년 지역 집권 정당 관계자들이 탕가일 지구(Tangail District)의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 건설 공사를 중단시킨 이후 여전히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¹²¹ ANI News, [Bangladesh: Hindu priest Chinmoy Krishna Das...](#), 5 May 2025

¹²² ANI News, [Bangladesh: Hindu priest Chinmoy Krishna Das...](#), 5 May 2025

¹²³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¹²⁴ Buddhistdoor Global, [Mission Statement](#), no date

¹²⁵ Buddhistdoor Global, [Indigenous Buddhists in Bangladesh's Chittagong Hill Tracts...](#), 9 Oct 2024

한 현지 소식통은 정부 관계자들이 지원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공사 현장의 건축 자재는 도난당했으며, 지역 무슬림 공동체가 기독교도들에게 공사를 재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소규모 기독교도 공동체 거주 지역에는 여전히 교회가 없는 상태이다.¹²⁶

11.5.2 동일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국제 언론에 따르면, 2023년 6월 다카 대교구(Archdiocese of Dhaka) 명예 대주교 패트릭 드로자리오(Patrick D'Rozario)는 방글라데시 내 소수 집단인 기독교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기독교 공동체 수호를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언급했다.¹²⁷

11.5.3 참고자료 검토 결과 국가정책정보팀은 기독교도 대한 국가의 처우와 관련해 추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참고문헌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11.6 무신론자

11.6.1 참고자료 검토 결과 무신론자에 대한 국가적 처우와 관련된 최근 정보는 제한적이었다(참고문헌 참조).

11.6.2 종교적 정서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셀림 칸에 관한 정보는 ‘이슬람 모욕 관련 체포 및 기소’를 참조한다. 셀림 칸은 출처에 따라 무슬림 또는 무신론자로 보도된 바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11.7 아흐마디교도

11.7.1 참고자료 검토 결과, 국가 차원에서 아흐마디교도를 적극적으로 탄압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참고문헌 참조).

11.7.2 아흐마디교도를 겨냥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국가의 무대응 관련 정보는 ‘보호’를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11.8 보호

11.8.1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는 ‘국가정책정보노트: 보호 행위자’를 참조한다.

11.8.2 호주 외교통상부 방글라데시 국가정보 보고서(DFAT 2022 report)는 주요 종교 행사 기간 국가의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방글라데시는 특히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교회에 무장 경비 인력을 제공하기도 한다.”¹²⁸

11.8.3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글라데시의 국가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두르가 푸자, 디왈리, 성탄절, 부활절, 전통 불교 축제인 붓다 푸르니마 기간에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여타 종교 시설, 축제 및 행사장에 지속적으로 치안 인력을 배치했다.”¹²⁹

11.8.4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아흐마디교도 대상 사회적 폭력에 대한 국가의 무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언론 보도와 아흐마디 무슬림 지도자들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에서 4일 사이 판차가르(Panchagarh) 지구 아메드나가르(Ahmednagar)에서 열린 아흐마디 공동체의 연례 집회 기간

¹²⁶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II), 26 June 2024

¹²⁷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¹²⁸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58), 30 November 2022

¹²⁹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수백 명이 아흐마디교도 공동체를 공격했을 당시, 치안 인력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방관했다. 정부는 방글라데시 국경경비대(Border Guard Bangladesh)와 신속행동대대(Rapid Action Battalion)가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으나 군중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흐마디 지도자들은 당국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규정한 세력으로부터 아흐마디교도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구 행정부와 경찰이 사실상 공격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보안군이 현장에 있었지만, 피해자 구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 시간 동안 공격이 지속되었고 아흐마디 무슬림 집회가 연기되고 나서야 진정되었다. 2023년 3월 7일 지구 경찰서장에 따르면 경찰은 8,000명 이상을 입건하고 80명 이상을 체포했다. 한 경찰 간부는 언론에 아흐마디교도 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사전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월까지 CCTV 영상과 정보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 주동자를 포함한 관련자 26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3월 15일 지역 당국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지원한 인도적 지원 기금 1천만 방글라데시 타카(88,500 미국 달러, 63,673 영국 파운드¹³⁰)를 피해 아흐마디 무슬림 가정에 분배했다. 2023년 5월 24일 국제인권위원회(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IHRC) 소속 국제조사단이 지역 관계자와 아흐마디교도 지도자들을 만났다.”¹³¹

- 11.8.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5년 사실조사 보고서(OHCHR 2025 FF report)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소년 살해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당국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¹³²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사회적 처우: 아흐마디교도’를 참조한다.
- 11.8.6 2024년 8월 12일 전 세계 ‘박해 받는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기독교 자선 단체¹³³ 오픈 도어즈(Open Doors)는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정보 출처는 거의 대부분 현지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목격 증언에 기반한다...”¹³⁴고 밝히며 ‘경찰 보호의 부재가 기독교도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¹³⁵
- 11.8.7 국제인권수호단체(HRDI)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종교적 소수자의 현실은 이와 다른 경우가 많다. 소수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일관성 없는 법 집행,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환경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잠재적 보복이나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정의를 실현하거나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한다.¹³⁶
- 11.8.8 2024년 12월 3일 미국의소리(VoA)는 다카 소재 연구 및 컨설팅 회사¹³⁷ 오르그-퀘스트 리서치(Org-Quest Research)가 2024년 10월 하순 무작위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는 임시정부가 민족적 및 종교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치안 제공에 있어, 63.2%는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응답했다.¹³⁸

¹³⁰ Xe.com, [10,000,000 BDT to GBP - Convert Bangladeshi Takas to British Pounds](#), 25 March 2025

¹³¹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¹³²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56), 12 Feb 2025

¹³³ Open Doors, [About](#), no date

¹³⁴ Open Doors, [FAQs](#), no date

¹³⁵ Open Doors, [Rising number of converts targeted ...](#), 12 August 2024

¹³⁶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¹³⁷ OrQuest, [Overview & Guiding Principle](#), no date

¹³⁸ VoA, [Survey: 4 months after uprising, most Bangladeshis want new elections](#), 2 December 2024

- 11.8.9 미국 국무부 2023년 방글라데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힌두교도에 대한 공격 가해자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특정 사례를 강조했다. “2024년 3월, 법원은 2016년 힌두교 사원 방화 혐의로 기소된 13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관한 소문이 퍼진 후 폭도들이 사원을 불태웠다.”¹³⁹
- 11.8.10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티투 레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해당 게시물은 힌두교도 마을 내 다수 가옥과 사원에 대한 파손 및 방화 사태를 촉발했으며, 폭도와 경찰 간의 충돌 과정에서 폭도 1명이 사망하고 경찰 15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부상했다. 그러나 폭력 사태 가담자 중 기소된 인원은 없었다. 이에 레이 측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¹⁴⁰ 티투 레이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이슬람 모욕 관련 체포 및 기소’를 참조한다.
- 11.8.11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힌두교도 지도자들은 2021년 두르가 푸자 축제 기간 중 발생한 반힌두교 집단 간 폭력 사태의 가해자를 정부가 적절히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2023년 10월 두르가 푸자 축제를 앞두고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치안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종교 간 대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해당 축하 기간 중 별도의 집단 폭력 사태는 보고된 바 없었다. 2023년 연말 기준, 경찰은 2021년 폭력 사태 이후 입건된 142건 사건 중 141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다. 힌두교 지도자들은 당시 사태로 파괴된 사원 전부가 완전히 재건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¹⁴¹
- 11.8.12 2024년 12월 2일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Affairs) 정무 차관은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도 공동체 대상 공격과 관련된 긴급 의회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특히 방글라데시 힌두교도 공동체 사안과 관련하여, 저는 방글라데시 임시정부로부터 국가 축제인 두르가 푸자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소수자 공동체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힌두교도 예배 장소인 만답(mandaps)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경찰 부대가 신설되어 활동에 나선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¹⁴²
- 11.8.13 2024년 12월 다카 트리뷴(Dhaka Tribune)은 아카시 다스 사건 및 지역 힌두 대상 폭력 관련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찰은 수남가니(Sunamgani) 도와라바자르 우파질라(Upazila)의 힌두 공동체 소유 가옥, 상점, 사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과 기물 파손 행위와 관련하여 4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정된 용의자 12명과 신원 미상자 150~170명을 입건 조치했다.”¹⁴³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체포 및 이슬람 모욕 관련 기소’를 참조한다.

¹³⁹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II), 26 June 2024

¹⁴⁰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II), 26 June 2024

¹⁴¹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II), 26 June 2024

¹⁴² UK Parliament, [Bangladesh: Attacks on Hindu Community](#), 2 December 2024

¹⁴³ Dhaka Tribune, [4 arrested over attack on Hindu community in Sunamganj](#), 14 December 2024

- 11.8.14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포르티시 사르카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경찰은 2021년 랑푸르에서 발생한 방화 및 종교·집단 간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74명을 체포했으나, 이들은 모두 2023년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없었다.¹⁴⁴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국가의 처우: 힌두교도'를 참조한다.
- 11.8.15 2024년 8월 27일, 인도 뉴스 매체¹⁴⁵ '더 프린트(The Print)'는 무신론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자에 대한 선고 및 석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안사룰라 방글라 팀(Ansarullah Bangla Team, ABT)의 수장 자심우딘 라흐마니(Jashimuddin Rahmani)가 2013년 무신론자 블로거 라지브 하이더(Rajib Haider) 살해 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8월 임시정부 출범 이후 석방되었다. 라흐마니는 테러 및 살인 혐의로 계류 중인 5건의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¹⁴⁶
- 11.8.16 동일 기사에 따르면, 라흐마니가 이끄는 안사룰라 방글라 팀(ABT)은 2013년과 2016년 사이, 블로거 아비지트 로이, 오야시쿠르 라흐만 바부(Oyasiqur Rahman Babu), 아난타 비조이 다스(Ananta Bijoy Das) 및 라즈샤히 대학교(Rajshahi University) 교수이자 작가인 AKM 샤피울 이슬람(AKM Shafiul Islam) 등 다수의 살해를 자인했다.¹⁴⁷
- 11.8.17 2024년 9월 12일 다카 트리뷴(Dhaka Tribune)은 수피 성지에 대한 공격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실렛의 하즈라트 샤 파란 성지(Hazrat Shah Paran Shrine) 관리인 피로즈 미아(Firoz Mia)는 공격 당시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지에 경찰이 추가 배치되었지만, 성지가 공격받고 신자들이 폭행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지라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 경찰청 부총감(AIG) 이나물 하크 사가르(Inamul Haque Sagar)는 "경찰 본부는 이러한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전 경찰에 강경 대응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공격 가담자는 신원을 확인하여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러나 경찰청 부총감(AIG)은 전국에서 발생한 총 공격 건수, 접수된 고소 건수, 체포 인원을 밝히지 못했다.¹⁴⁸
- 추가 정보는 '사회적 처우: 수피 교도'를 참조한다.
- 11.8.18 2025년 1월 31일 아시아가톨릭뉴스(Union of Catholic Asian News, UCA News)는 수피 성지 대상 위협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구 경찰서장 카지 아크타르 울 알람(Kazi Akhtar Ul Alam)은 성지 측에 '노래와 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 또한 그는 아시아가톨릭뉴스(UCA News)에 "이 요청은 강경파 단체 공격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다.¹⁴⁹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사회적 처우: 수피 교도를 참조한다.
- 11.8.19 2025년 3월 22일 '아시아 국제 정책 분석 및 연구 매체'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 EAF)은¹⁵⁰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¹⁴⁴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¹⁴⁵ The Print, [About](#), no date

¹⁴⁶ The Print, [Who is Jashimuddin Rahmani, pro-al-Qaeda chief...](#), 27 August 2024

¹⁴⁷ The Print, [Who is Jashimuddin Rahmani, pro-al-Qaeda chief...](#), 27 August 2024

¹⁴⁸ Dhaka Tribune, [Why attacks on shrines remain rampant in Bangladesh?](#), 15 September 2024

¹⁴⁹ UCA News, [Bangladeshi Sufi shrine drops devotional music over Islamist threat](#), 31 January 2025

¹⁵⁰ EAF, [About](#), no date

“2024년 8월 하시나 정권의 붕괴는 방글라데시 정치 지형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다.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가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표적이 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의 집권 당시 아와미 연맹(AL)은 인도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친힌두 정서를 빈번하게 악용했으나, 방글라데시 내 소수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시나 총리 재임 기간인 2013년과 2021년 사이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3,600건 이상 보고되었지만, 단 한 건도 사법 재판으로 종결되지 않아 소수자 보호에 대한 총리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024년 8월, 학생 주도의 격렬한 혁명으로 하시나 정부가 붕괴된 직후... 아와미 연맹(AL)이 배후에서 대규모 힌두 시위를 기획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¹⁵¹

[목차로 돌아가기](#)

12. 사회적 처우 및 종교 간 관계

이 장에서는 소수 종교 집단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다룬다. 정보의 출처는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지칭하나, 각 집단이 겪는 경험은 상이할 수 있다.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하 항목에서는 각 집단에 대한 처우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2.1 일반

12.1.1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인권 단체와 종교적 지도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종교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2023년 3월, 아흐마디교도 공동체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친 자마트-에-이슬람(Jamaat-e-Islami) 성향으로 평가받는 온라인 언론사인 바셰르켈라(Basherkella) 소셜 미디어 계정이, 아메드나가르에서 열린 아흐마디교도 집회에서 반아흐마디 폭력 사태를 저지하려던 경찰의 조치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들은 아흐마디교도 공동체를 ‘충격과 당혹감’에 빠뜨렸다. 공동체 구성원은 바셰르켈라 계정의 게시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힌두교 지도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힌두교도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는 데 점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 사무총장 라나 다스굽타(Rana Dasgupta)는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빌미로 발생한 힌두 교도 공동체에 대한 폭력 사태 중 상당수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라나 다스굽타는 다수 사례에서 ‘범법자들’이 선동을 목적으로 힌두교도 공동체 내 빈곤층의 명의를 도용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종교적 정서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통해 힌두교도 공동체 구성원이 거주 중인 가옥에 대한 공격을 유도했다고 전했다.”¹⁵²

12.1.2 미국 국무부 2023년 방글라데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사회적 압력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무신론적, 세속적, 종교적 소수 집단 소속 ... 작가와 블로거는 자신들이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¹⁵³

12.1.3 프리덤하우스 2024년 보고서(FH 2024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민감한 종교적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제약되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Questioning+,

¹⁵¹ EAF, [Minorities in Bangladesh caught within political upheaval](#), 22 March 2025

¹⁵²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 (section 3), 26 June 2024

¹⁵³ USSD, [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Bangladesh](#) (section 2), 22 April 2024

LGBT+) 권리, 무신론 또는 이슬람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이들에게 보복을 가했다.¹⁵⁴ 프리덤하우스 2023년 보고서(FH 2023 report)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었다.¹⁵⁵

12.1.4 동일한 프리덤하우스 2024년 보고서(FH 2024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세속주의적 견해나 주류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가진 이들은 사회적 비난과 강경 이슬람 단체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힌두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시아파 및 아흐마디 무슬림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괴롭힘과 폭력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는 종교 시설을 겨냥한 간헐적인 군중 폭력도 포함된다. 종교적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의적으로 조장되어 왔다.”¹⁵⁶

12.1.5 프리덤하우스 2024년 보고서(FH 2024 report)는 ‘이슬람 단체의 압력과 위협으로 종교적 소수자 보호와 같은 일부 사안에 대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또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¹⁵⁷

12.1.6 2024년 베르텔스만 변혁 지수 방글라데시 국가 보고서(BTI 2024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 사건이 현저히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종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총 4,007건의 탄압이 발생했으며, 피해 대상은 주로 힌두교도, 기독교도, 아흐마디교도 및 불교도 집단이었다.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토지 강탈과 결부되어 발생하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탕가일(Tangail) 지역에서 아와미 연맹(AL) 간부가 주도하는 무리가 사원을 습격하여 석상 3개를 파손했다.¹⁵⁸ 그러나 2024년 베르텔스만 변혁 지수 방글라데시 국가 보고서(BTI 2024 report)는 지난 14년간 발생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겪은 구체적인 피해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12.1.7 2024년 8월 12일 오픈 도어즈(Open Doors) 기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정치·사회적 불안의 여파로 방글라데시 내 기독교 개종자 및 기타 종교적 소수자들이 급진 세력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¹⁵⁹

12.1.8 국제인권수호단체(HRDI)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종교적 극단주의와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 사원, 교회 및 기타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 사태가 방글라데시 전역에 만연한 수준은 아니나, 다수의 소수자 공동체에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 종교적 불관용은 군중 습격, 종교 시설 훼손, 특정 대상을 겨냥한 괴롭힘과 같은 폭력적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개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심각할 수 있으며, 소수자들이 신변의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한다.

경제적·물리적 위협 외에도 종교적 소수자는 문화적·사회적 배제에 직면한다. 이는 일상적 교류 과정에서의 차별, 언론과 공공 담론에 의해 고착화된 부정적 고정관념, 국가 주류 담론에서 소수자의 존재가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양상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¹⁵⁴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section D4), 26 Feb 2025

¹⁵⁵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4: Bangladesh](#) (section D4), Feb 2024

¹⁵⁶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section E2), 26 Feb 2025

¹⁵⁷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section E2), 26 Feb 2025

¹⁵⁸ BTI, [BTI 2024 Country Report: Bangladesh](#) (page 16), 19 March 2024

¹⁵⁹ Open Doors, [Rising number of converts targeted ...](#), 12 August 2024

주류 문화 및 정치적 담론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은 해당 공동체가 더욱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소수자 공동체가 고유의 축제와 전통을 기념하는 행위는 종종 냉대나 적대감에 직면하며, 이는 이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킨다.”¹⁶⁰

- 12.1.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5년 사실조사 보고서(OHCHR 2025 FF report)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종교적 소수자 공동체 및 집단은 차별 금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벵골 및 이슬람 정체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사건과 헌법 체계에 기인하여,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을 겪어왔다. 특히 정치적 격변기마다 종교적 소수자 공동체와 집단은 희생양으로 전락하거나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어왔다. 종교적 소수자들이 겪는 실제 문제는 정작 그들 자신의 곤경 해결과는 무관하게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허위 정보, 왜곡 및 조작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⁶¹

- 12.1.10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5년 사실조사(OHCHR FF 2025)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024년 8월 초, 전 정권이 국가 통제력을 상실해 감에 따라, 아와미 연맹(AL) 관계자를 비롯하여 실제 지지자 혹은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 경찰, 그리고 당을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된 언론 매체를 특정하여 군중이 보복 살해를 자행하는 등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시위 기간과 그 이후에도 힌두교 공동체, 아흐마디 무슬림, 치타공 구릉지대(CT) 토착민이 군중 폭력의 표적이 되어 가옥 방화와 예배 장소 공격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이면에는 종교·민족적 차별, 소수자 집단 내 아와미 연맹(AL) 지지자들에 대한 보복 심리, 토지 문제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 간 분쟁, 그리고 개인적 원한 등 다양하고 상호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했다. 일부 자마트-에-이슬람(Jamaat-e-Islami)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지지자, 당원 및 지역 지도자들 역시 특정 종교 및 토착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¹⁶²

- 12.1.11 최근 정치적 불안 기간 동안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 배후의 동기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5년 사실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 기간 및 그 여파 동안,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도, 아흐마디 무슬림 및 토착민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피해 사례의 대다수는 가옥과 사업장의 기물 파손, 약탈 및 방화와 관련이 있으나, 이 외에도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과 심각한 신체적 폭행, 그리고 최소 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소수자 중 아와미 연맹(AL) 지지자에 대한 정치적 복수, 종교적·민족적 차별, 개인 분쟁 해결, 지역 공동체 간 갈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중첩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과 자마트-에-이슬라미의 일부 당원, 지지자 및 지역 지도자가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에 가담했으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과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 지도부는 이러한 폭력을 규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러한 인권 침해 사태가 국가 지도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⁶³

- 12.1.12 동일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5년 사실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특히 사원과 성지와 같은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 사례가 오래전부터 기록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언론 및 현지 정보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힌두교도, 아흐마디 이슬람교도, 불교도 및 기독교도 공동체의 예배 장소가 공격당한 사례가 보고됐다.

¹⁶⁰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¹⁶¹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 (paragraph 228), 12 February 2025

¹⁶²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iii), 12 Feb 2025

¹⁶³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68), 12 Feb 202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랄모니르하트(Lalmonirhat)의 하티반다(Hatibandha) 및 부라샤르두비(Burashardubi) 지역에서 3곳의 사원이 공격을 받아 방화로 소실되었으며, 약 20채의 가옥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해당 지역 공동체의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메헤르푸르(Meherpur)에서는 국제크리슈나의식협회(ISKCON) 사원을 대상으로 한 방화 사건도 발생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고된 여타 개별 사건들 또한 이러한 공격 사태의 이면에 복합적인 양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2024년 8월 7일 난디파라(Nandipara)의 칼리(Kali) 사원이 공격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해당 피해는 종교적 불관용이 아닌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현지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⁶⁴

12.1.13 2024년 10월 30일 방글라데시 온라인 독립 뉴스 매체¹⁶⁵ 네트라 뉴스(Netra News)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는 2024년 9월 19일 발표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힌두교도 남성 9명이 살해된 사건은 6주 전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 축출 이후 전국을 휩쓴 반(反)힌두교적 ‘공동체 간 잔혹 행위(communal atrocities)’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트라 뉴스(Netra News)의 조사 결과, 해당 사망 사건들에서 종교적 혹은 종파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명백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7건의 사망 사례는 정치적 보복, 군중 폭력, 그리고 일반 살인 범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의 경우, 연합 평의회(Unity Council)가 인용한 뉴스 보도와 자체 지역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히려 평의회 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네트라 뉴스(Netra News)는 목격자, 사망자의 유가족 및 지인, 현지 언론인, 공무원, 지역 연합 평의회(Unity Council) 회원과의 대화를 포함한 20여 건 이상의 1차 인터뷰와 공식 기록, 소셜 미디어 게시물, 미공개 언론 인터뷰, 다수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 보고서를 도출했다.”¹⁶⁶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통계’ 역시 참조한다.

12.1.14 2024년 12월 11일, 인도 신문¹⁶⁷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New Indian Express)는 2024년 8월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Press Trust of India Ltd., PTI)(PTI 통신)에 따르면 임시정부 공보비서관 알람(Alam)은 수남간지, 가지푸르 및 기타 지역에서 추가적인 폭력 사건이 보고됨에 따라, 관련 사건 및 체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일련의 공격 사태가 모두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알람은 피해자 중 일부가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끌던 아와미 연맹(AL)의 당원 또는 관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정치적 배경이나 사적 분쟁으로 인해 공격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알람은 “일부 공격은 전 집권당 소속 인사들을 겨냥했거나 사적 분쟁의 결과로 발생했다. 그러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상당수의 사건이 종교적 불관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¹⁶⁴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57), 12 Feb 2025

¹⁶⁵ Netra News, [About](#), no date

¹⁶⁶ Netra News, [Claims of sectarian motives in nine Hindu deaths falter under scrutiny](#), 30 Oct 2024

¹⁶⁷ The New Indian Express, [About Us](#), no date

알람은 또한 2024년 10월 22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세부 사항이 후속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했다.”¹⁶⁸

12.1.15 남아시아테러리즘포털(South Asia Terrorism Portal, SATP)은 남아시아의 테러리즘 및 저강도 교전에 관한 최대 규모의 웹사이트로, 이 지역 내 모든 극단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적 맥락 정보를 제공한다.¹⁶⁹ 남아시아테러리즘포털(SATP) 2024년 방글라데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자 집단은 린치, 체포, 강도, 사원 훼손, 토지 강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동부의 키쇼레간즈, 네트로코나(Netrokona), 수남간지, 몰비바자르(Moulvibazar), 북부의 마이멘싱, 랑푸르, 쿠리그램(Kurigram), 디나지푸르(Dinajpur), 남부의 쿨나, 파투아칼리 및 락슈미푸르(Lakshmipur), 서부의 라즈사히, 그리고 치타공 구릉지대(CHAT)의 랑가마티(Rangamati) 등이었다.¹⁷⁰ 남아시아테러리즘포털(SATP) 방글라데시 평가보고서는 종교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침해 사례까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12.1.16 2025년 3월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sian News International, ANI) 보도 기사에 따르면 수요일 방글라데시 최대 소수자 단체인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는 종교적·민족적 소수자 및 토착민에 대한 폭력 사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⁷¹

12.1.17 2025년 1월 30일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는 다양한 신문 보도에 기반하여 '방글라데시 종교-민족 소수자에게 자행된 공동체 간 잔학 행위에 관한 보고서'(BHBCUC 2025 report)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024년 12월 10일 기준, 총 88건의 사건에 연루된 70명이 체포됐다. 2025년 1월 11일, 수석고문실 공보팀(Chief Adviser's Press Wing)은 경찰 수사 결과를 인용하여, 신고 접수된 2,010건 중 실제 공격 및 기물 파손 행위로 확인된 사례는 1,769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415건에 대한 수사가 완료됐으며, 354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62건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됐고, 951건은 일반사건기록(GD)으로 접수됐으며, 가해자 35명이 체포됐다. 공보팀은 확인된 1,769건 중 1,234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20건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간 문제에 기인한 사건이라고 보고했다.”¹⁷² '종교적 소수자 대상 폭력에 관한 통계'도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12.2 종교적 소수자 대상 폭력에 관한 통계

12.2.1 '방글라데시 법률 구조 및 인권 단체로서 특히 여성, 아동 노동자 및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게 법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¹⁷³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ASK)는 공개 뉴스 보도를 기반으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분기별 및 연도별 집계하고 있다. 다음 표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힌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폭력 사례를 개괄한 것이다(국가정책정보팀 작성).^{174 175 176 177}

¹⁶⁸ The New Indian Express, [Bangladesh acknowledges attacks on minorities...](#), 11 December 2024

¹⁶⁹ SATP, [About us](#), no date

¹⁷⁰ SATP, [Bangladesh: Assessment- 2025](#), no date

¹⁷¹ ANI News, [Violence against minorities continues in Bangladesh, says Minority group](#), 12 Mar 2025

¹⁷² BHBCUC, [Report on Communal Atrocities committed upon...](#) (page 4), 30 Jan 2025

¹⁷³ ASK, [About us](#), no date

¹⁷⁴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2](#), 3 January 2023

¹⁷⁵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3](#), 8 January 2024

¹⁷⁶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4](#), 31 December 2024

¹⁷⁷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Feb 2025](#), 11 March 2025

	2022	2023	2024	2025 (1월-2월)
사건	12	21	127	3
가옥 공격	3	5	230	-
가옥 방화	1	-	14	-
사업체 공격	8	1	108	1
사업체 방화	-	-	1	-
사원/수도원 공격	4	11	26	2
사원/수도원 방화	3	1	4	-
조형물 파괴	11	43	92	13
토지 강탈	-	-	5	-
부상자	5	19	58	4
사망자	-	-	3	-
합계	47	101	668	23

12.2.2 아인 오 살리시 캔드라(ASK)가 발행한 종교적 소수자 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불교도에 대한 폭력 사례 2건이 보고되었으며, 기타 일반 사건 1건, 사찰, 수도원 또는 조형물 방화 사건 1건으로 분류됐다.^{178 179 180 181}

12.2.3 다음 표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아흐마디교도 대상 침해 등을 다룬 아인 오 살리시 캔드라(ASK)의 종교적 소수자 폭력 보고서를 개괄한 것이다.^{182 183 184 185}(국가정책정보팀 작성).

	2022	2023	2024	2025 (1월-2월)
사건	0	1	6	0
가옥 공격	0	103	156	0
가옥 방화	0	0	0	0
사업체 공격	0	4	0	0
사업체 방화	0	29	0	0
사원/수도원 공격	0	0	6	0
사원/수도원 방화	0	1	0	0
조형물 파괴	0	0	0	0
토지 강탈	0	0	0	0
부상자	0	62	22	0
사망자	0	1	1	0
합계	0	201	191	0

12.2.4 아인 오 살리시 캔드라(ASK)의 종교적 소수자 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기독교도에 대한 폭력 사례 27건이 2022년 1월에서 2025년 2월 사이의 보고 기간 동안

¹⁷⁸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2](#), 3 January 2023

¹⁷⁹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3](#), 8 January 2024

¹⁸⁰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4](#), 31 December 2024

¹⁸¹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Feb 2025](#), 11 March 2025

¹⁸²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2](#), 3 January 2023

¹⁸³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3](#), 8 January 2024

¹⁸⁴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4](#), 31 December 2024

¹⁸⁵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Feb 2025](#), 11 March 2025

접수됐다. 기독교도에 대한 폭력 사례 27건에는 기타 사건 8건, 가옥 공격 10건, 가옥 방화 5건, 사업체 공격 2건, 사원, 수도원 또는 조형물에 대한 방화 1건, 그리고 부상자 1명이 발생한 사건이 포함된다.¹⁸⁶
187 188 189

- 12.2.5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ASK)의 종교적 소수자 대상 인권 침해 통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방글라데시 전역의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ASK)는 2023년 1월부터 12월 사이 종교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총 2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아흐마디교도 1명 포함), 81명이 부상을 입었다(아흐마디교도 62명, 힌두 19명). 물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아흐마디 공동체 가옥 103채, 사업장 33곳, 모스크 1곳, 진료소 1곳이 공격을 받았으며, 힌두교 공동체에서는 사원 6곳, 가옥 5채, 사업장 1곳이 공격받고 조형물 43개가 파손됐다. 비정부기구(NGO)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ASK)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ASK)는 종교적 소수자 대상 폭력 12건을 보고했다. 이 사건들로 인해 힌두교도 부상자 5명, 가옥 파괴 1건, 사업체 파괴 8건, 사원 파괴 4건, 조형물 파괴 11건이 집계됐으며, 아흐마디교도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2024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정치적 폭력 사태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이러한 폭력이 소수자, 특히 힌두교도를 대상으로 가해졌다고 전했다.”¹⁹⁰

- 12.2.6 2024년 7월 10일, 가톨릭교회 뉴스 매체 ¹⁹¹인 바티칸 뉴스(Vatican News)는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의 연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된 한 이 보고서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총 1,045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살인 45건, 살인 미수 10건, 살해 위협 36건, 신체적 공격 피해 479명, 그리고 소수자 소유 가옥 및 사업체에 대한 대상 공격·기물 파손·약탈·방화 102건 등이 포함됐다.¹⁹²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종교별 수치에 대한 추가 세부 분류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국가정책정보팀(CPIT)은 참조한 자료 내에서 해당 보고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참고문헌 참조).

- 12.2.7 남아시아테러리즘포털(SATP) 2024년 방글라데시 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남아시아테러리즘포털(SATP)이 수집한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8월 5일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최소 27건의 소수자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 2024년 8월 13일, 23개 힌두교 종교 단체의 연합체인 방글라데시 자티야 힌두 마조르(Bangladesh Jatiya Hindu Mahzor, BJHM)는 하시나 정권의 붕괴 이후 힌두교도 공동체가 48개 지구 내 278개 지역에서 공격과 위협에 직면했다고 밝혔다.”¹⁹³

- 12.2.8 2024년 12월, 뉴스 인디언 익스프레스(News Indian Express)는 정치적 소요 사태 이후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2024년 8월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의 퇴진 이후, 주로 힌두교도 대상 종교·집단 간 폭력 사건이 총 88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임시정부 수반 무함마드 유누스의 언론 비서관 샤피쿨 알람(Shafiqul Alam)이 이 폭력 사건 수치를 공개하며, 해당 공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70명이

¹⁸⁶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2](#), 3 January 2023

¹⁸⁷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3](#), 8 January 2024

¹⁸⁸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4](#), 31 December 2024

¹⁸⁹ ASK,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Feb 2025](#), 11 March 2025

¹⁹⁰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 (section III), 26 June 2024

¹⁹¹ Vatican News, [About us](#), no date

¹⁹² Vatican News, [Report records 1,045 cases of violence against minorities...](#), 10 July 2024

¹⁹³ SATP, [Bangladesh: Assessment- 2025](#), no date

체포됐다고 덧붙였다.¹⁹⁴

- 12.2.9 2025년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 보고서는 소수자 대상 종교·집단 간 폭력 사건을 기술했다. 다음 표(국가정책정보팀 작성)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 중 일부는 단일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가구가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¹⁹⁵

종교·집단 간 폭력 유형	사건 건수
살해/살인	23
여성에게 대한 폭력/강간/집단 강간	9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 파괴, 약탈 및 방화	64
종교 모욕 혐의에 대한 체포 및 고문	15
가옥 및 사업체에 대한 공격, 파괴, 약탈 및 방화	38
가옥, 토지 및 사업체 점거	25
합계	174

- 12.2.10 동일한 2025년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2024년 9월 19일,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는 다카 기자 연합(Dhaka Reporters' Unity)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2,010건의 종교·집단 간 폭력 사건을 상세히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¹⁹⁶ 국가정책정보팀(CPIT)은 참조한 자료 내에서 2024년 9월 보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참고문헌 참조).

- 12.2.11 뉴델리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¹⁹⁷인 민주주의·다원주의·인권센터(Centre for Democracy, Pluralism and Human Rights, CDPHR)는 현장 조사, 언론 보도 및 진상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내 소수 집단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2024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치적 소요 사태 이후 발생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 실태를 다룬 2024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민주주의·다원주의·인권센터 현장 보고서(CDPHR Ground Report)는 하시나 전 총리 사임 직후 첫 4일(2024년 8월 5일 – 2024년 8월 8일)간 발생한 참상을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피해 내역은 약탈 및 기물 파손 190건, 약탈 후 방화로 인한 가옥 소실 32건, 불법 토지 및 사원 점유 8건, 사원 훼손 16건, 납치 2건, 강간 2건, 살인 2건이 보고됐다. 특히 8월 6일 하루에만 힌두교 가옥 및 사업체 파괴 약 200건, 힌두교 사원 약탈 및 파괴 15-20건 사례가 보고됐다. 여러 인권단체에 따르면, 2024년 8월 20일까지 사원 훼손 69건, 힌두교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격 157건을 포함하여 약 2,010건이 기록됐다.”¹⁹⁸

- 12.2.12 동일한 민주주의·다원주의·인권센터 현장 보고서(CDPHR Ground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방글라데시는 8개의 관구 체제로 운영되며 바리살, 차타그람(Chattogram), 마이멘싱, 다카, 쿨나, 라즈샤히, 랑푸르, 실렛 관구 아래 총 64개 지구가 있다. 민주주의·다원주의·인권센터 현장 보고서(CDPHR Ground Report)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힌두교도와 그들 소유의 가옥, 상점 및 사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의 대다수는 차타그람, 다카, 마이멘싱, 쿨나 및 랑푸르 관구에서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구는 셰르푸르(Sherpur), 마이멘싱, 노아칼리(Noakhali), 쿨나, 자쇼레(Jashore), 나라얀간지(Narayanganj), 치타공, 탕가일 및 라즈바리(Rajbari)였다.”¹⁹⁹

¹⁹⁴ The New Indian Express, [Bangladesh acknowledges attacks on minorities...](#), 11 December 2024

¹⁹⁵ BHBCUC, [Report on Communal Atrocities committed upon...](#) (page 4), 30 Jan 2025

¹⁹⁶ BHBCUC, [Report on Communal Atrocities committed upon...](#) (page 3), 30 Jan 2025

¹⁹⁷ CDPHR, [About us](#), no date

¹⁹⁸ CDPHR, [Report on Bangladesh Minorities Under Siege](#) (page 2), 13 December 2024

¹⁹⁹ CDPHR, [Report on Bangladesh Minorities Under Siege](#) (page 12), 13 December 2024

12.2.13 남아시아 언론 통신사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sian News International, ANI)은 2025년 3월 12일 기사를 통해, 2025년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의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25년 1월과 2월 두 달간 살인 11건, 여성 강간 3건, 사원 공격 25건 등 총 92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24년 8월 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총 2,184건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살인 32건, 성폭력 13건, 예배 장소 공격 133건을 포함하는 수치라고 전했다.”²⁰⁰ 그러나 해당 기사는 이러한 폭력 행위의 주체가 국가 행위자인지 비국가 행위자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정보의 수집 및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12.2.14 2025년 3월 26일, 비당파적 뉴스 및 사실 검증 매체²⁰¹인 트비스타(Tvista)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폭력 관련 통계와 관련하여 사실 검증 기사를 게재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소수자 및 인권 단체 자료를 인용해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 힌두교도 대상 폭력 사건이 2,200건 이상 기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글라데시 당국과 독립 인권 단체가 강하게 반박했다. 방글라데시 수석고문실 공보팀은 이 수치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심하게 과장되었다’고 비판했다. 소위 종교적 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중 상당수는 종파 간 폭력이 아닌 개인적·사회적·경제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²⁰²

[목차로 돌아가기](#)

12.3 힌두

12.3.1 국제인권수호단체(HRDI)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비록 힌두교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힌두교 문화와 전통은 방글라데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국가 축제, 음식 문화 및 예술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²⁰³

12.3.2 2023년 5월 23일, 뉴 에이지(New Age)는 온라인상에서 이슬람을 비하한 힌두 티투 레이 사건과 이와 연관되어 발생한 군중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10일 랑푸르 타쿠르파라 지역의 힌두 마을에서, 이슬람과 예언자 무함마드(SM)를 비방한 티투 레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항의하던 군중이 가옥 10채에 불을 지르고, 가옥 7채와 사원 2곳을 파괴했다.”²⁰⁴

12.3.3 2024년 8월 6일, BBC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하шина 총리가 국외로 도피한 후 소셜 미디어는 힌두 소유 자산과 사원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제보들로 넘쳐났다. 인도 외교부장관 S 자이산카르(S Jaishankar)는 화요일(역: 8월 6일)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여러 지역에서 소수자들과 그들의 사업장, 그리고 사원 또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²⁰⁰ JMBF, [Press & Public Statement: JMBF Strongly Condemns the Continuous...](#), 18 March 2025

²⁰¹ Tvista, [About Us](#), no date

²⁰² Tvista, [Fact-Check: Claims of Widespread Religious Violence...](#), 25 March 2025

²⁰³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²⁰⁴ New Age, [Rangpur man jailed for 10 years for defaming Islam](#), 23 May 2023

그러나 무슬림 청년 단체들 또한 추가적인 파괴 행위를 방지하고자 힌두 가옥과 성지를 보호하고 있었다.²⁰⁵

12.3.4 또한 BBC 뉴스(BBC News)는 학생 주도 시위 이후 힌두교도들이 아와미 연맹(AL)의 지지자로 간주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발생한 3건의 대(對)힌두교도 군중 폭력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다카 북부의 한 사례에서는 “... 현지 무슬림들이 힌두교도 가옥과 사원 주변에 보호막을 형성하고자 결집했다”고 보도했다.²⁰⁶

12.3.5 2024년 8월 18일, BBC 뉴스(BBC News)는 학생 주도 시위 사태의 여파로 힌두교도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폭력과 약탈 행위가 힌두교도와 그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나, 인접국 인도의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들은 허위 영상과 정보를 유포하여 사건을 왜곡했다. 이들은 ‘이슬람 급진주의자’가 폭력적 의도를 갖고 힌두교도를 대상으로 종교·집단 간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중 온라인상에 급속히 유포된 한 게시물은 ‘방글라데시 이슬람주의자들’이 사원을 방화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BBC 베리파이(BBC Verify)는 치타공의 나바그라하 사원(Navagraha Temple)으로 지목된 이 건물이 실제로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화재는 인근 아와미 연맹(AL) 당사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허위 정보로 판명된 여타 유포 게시물 중에는 방글라데시 국적 힌두교도 크리켓 선수의 자택이 전소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BBC 베리파이(BBC Verify)는 확인 결과, 주택의 실제 소유주는 아와미 연맹(AL) 소속의 무슬림 국회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BBC는 화재로 전소된 한 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이 사례 역시 공격의 동기는 종교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허위 게시물들은 여러 계정에서 공유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계정이었다.

방글라데시의 증오 발언 및 허위 정보 관련 전문가인 사예드 알-자만(Sayeed Al-Zaman) 교수는 종교 간 긴장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알-자만 교수는 셰이크 하시나의 급격한 퇴진 이후 ‘힌두교도들이 정부 부재와 치안 공백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상황이 다시 위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정보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인플루언서에 의한 공포 조장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²⁰⁷

12.3.6 동일한 BBC 뉴스(BBC News) 기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건과 공격이 발생했으나, 그 동기가 종교적인지 정치적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 힌두교도 주민은 소수자 대부분이 셰이크 하시나의 세속 정당인 아와미 연맹(AL) 지지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²⁰⁵ BBC News, [‘There is no law and order. And Hindus are being targeted again’](#), 6 August 2024

²⁰⁶ BBC News, [‘There is no law and order. And Hindus are being targeted again’](#), 6 August 2024

²⁰⁷ BBC News, [‘The far-right videos distorting the truth of Bangladesh minority attacks’](#), 18 August 2024

AFP 통신 방글라데시 정보 검증 전문가 카다루딘 시시르(Qadaruddin Shishir)는 BBC에 힌두교도 소유 재산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도의 우파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을 마치 종교적 공격인 양 호도하여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자 인권 보호 비영리단체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는 힌두교도 5명이 살해됐다고 보고했다. 이 중 2명은 아와미 연맹(AL) 당원으로 확인됐다.”²⁰⁸

최근 시위 중 발생한 폭력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국가정책정보노트(CPIN) 방글라데시: 정치 상황’을 참조한다.

- 12.3.7 2024년 8월 폭력 사태 당시 지역 무슬림 공동체가 제공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힌두교도 대상 공격에 관한 허위 주장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자 일부 무슬림 시위대가 힌두교 사원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지난주 치타공 외곽 하타라지(Hatharazi)의 한 사원 앞에서 경비를 섰던 모이눌(Moinul)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모이눌은 소셜 미디어에 확산된 게시물에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 갈등을 선동하려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원을 찾은 현지 힌두교도 초톤 바닉(Choton Banik)은 ‘이 중대한 시기에’ 공동체 간의 평화를 지키려는 자발적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도 독립된 방글라데시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고 말했다.²⁰⁹

- 12.3.8 최근 정국 혼란기에 힌두교도의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프리덤하우스 2024년 보고서(FH 2024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하시나 총리 사임 직후 2주간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소수자, 주로 힌두교도 공동체의 가옥과 사업체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으며 최소 2명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 임시정부는 해당 폭력 사태의 대부분이 공동체 간 동기가 아닌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11월 한 힌두교 사제가 선동 혐의로 체포되면서 폭력 사태가 재발했다.²¹⁰ 힌두교 성직자 체포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국가의 처우: 힌두’ 참조한다.

- 12.3.9 프리덤하우스 2024년 보고서(FH 2024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최근 몇 년간 힌두교도의 가옥, 사업체 및 사원이 훼손되거나 파괴됐다.²¹¹

- 12.3.10 2024년 12월 12일 프레센자(Pressenza)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정부는 소수자 집단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제크리슈나의식협회(ISKCON)가 급진 단체로 부당하게 규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다카 고등법원은 정부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제크리슈나의식협회(ISKCON) 활동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안보 확보와 모든 시민의 신앙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²¹²

- 12.3.1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5 사실조사 보고서(OHCHR 2025 FF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²⁰⁸ BBC News, [The far-right videos distorting the truth of Bangladesh minority attacks](#), 18 August 2024

²⁰⁹ BBC News, [The far-right videos distorting the truth of Bangladesh minority attacks](#), 18 August 2024

²¹⁰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section D2), 26 Feb 2025

²¹¹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section D2), 26 Feb 2025

²¹² Pressenza, [Is Bangladesh Living Up to Its Promise of Religious Harmony?](#), 12 December 2024

“전 정부 붕괴 이후 힌두교도의 가옥, 사업체, 예배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이 보고되었다. 특히 타쿠르가온, 랄모니르하트, 디나지푸르 등 농촌 지역과 역사적으로 긴장이 높았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실렛, 쿨나, 랑푸르 등지에서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파괴 행위는 친아와미 연맹 성향으로 인식되는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힌두교도가 오랫동안 아와미 연맹 지지층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²¹³

12.3.1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5 사실조사 보고서(OHCHR FF 2025)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한 소식통이 입수한 목격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공격은 주로 전 정부의 붕괴를 축하하는, 이른바 ‘승리 행진’에 참여한 인원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가해자들의 신원이 매번 명확히 특정된 것은 아니나, 일부 사건의 목격자들은 공격 주체가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 및 기타 조직화된 단체의 현지 지지자들과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정당 차원에서 폭력을 규탄하며 개입에 나선 사례도 존재했다. 2024년 8월 6일 이후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자마트-에-이슬라미, 학생 단체 및 사회단체가 힌두교도 공동체의 가옥과 예배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²¹⁴

12.3.1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5 사실조사 보고서(OHCHR FF 2025)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방글라데시 임시정부를 통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공된 방글라데시 국가안보정보국(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NSI) 자료에는 2024년 8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발생한 소수자 대상 폭력 공격 37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공격은 제소르, 노아칼리, 파투아칼리, 나토레(Natore), 디나지푸르, 찬드푸르(Chandpur), 샤리아트푸르(Shariatpur), 랑푸르, 라즈샤히, 쿨나, 므헤르푸르(Mherpur), 바르구나(Barguna), 바리살, 라즈바리, 타쿠르가온, 파리드푸르(Faridpur), 피로즈푸르(Pirojpur) 및 네트라코르나(Netrakorna)에서 발생했다. 보고된 공격 대부분은 가옥이나 사업체에 대한 파괴, 약탈, 방화였으며, 사원을 표적으로 한 공격도 4건 있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물리적 폭행도 발생하여 한 여성은 목이 베였고 한 남성은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 확인된 피해자 중 9명은 아와미 연맹(AL) 정치 활동과 연관되어 있었다. 5건의 공격에서 국가안보정보국(NSI)은 공격자 중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지지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2025년 1월 방글라데시 경찰은 비정부기구(NGO)인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BHBCUC)가 보고한 2024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소수자 대상 공격 및 기물 파손 1,769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1,234건은 정치적 동기, 20건은 종파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으며, 161건은 허위 신고로 판명되었다.”²¹⁵

12.3.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5 사실조사 보고서(OHCHR 2025 FF report)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과 자마트-에-이슬라미 야당의 일부 지역 당원 및 지지자는 힌두교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포함한 보복 공격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²¹⁶

12.3.15 최근 정치적 불안정 이후 힌두교도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관련하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25년 보고서(USCIRF 2025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방글라데시의 종교적 자유 상황은 종교적 소수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공격으로 악화됐다.

²¹³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page 55-56), 12 Feb 2025

²¹⁴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56), 12 Feb 2025

²¹⁵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56), 12 Feb 2025

²¹⁶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56), 12 Feb 2025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낳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실각으로 이어진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 사태 이후, 힌두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와 사원에 대한 시설물 파손과 군중 폭력 등 공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전통 매체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무함마드 유누스(Mohamed Yunus)가 이끄는 임시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폭력 사태에 관한 허위 정보나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산됐다. 하시나 총리 퇴진 후 폭력 사태로 수백 명의 힌두교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이는 종교적 이유보다 정치적 소속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²¹⁷

[목차로 돌아가기](#)

12.4 불교도

- 12.4.1 호주 외교통상부(DFAT) 2022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불교도는 대체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종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나, 담당 교사가 반드시 불교도인 것은 아니다. 소식통들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불교도는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불교도 출신의 일부 초임 의사들도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불교도를 포함한 소수자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뇌물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²¹⁸
- 12.4.2 호주 외교통상부(DFAT) 2022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다른 종교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불교도가 차별을 피하기 위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²¹⁹
- 12.4.3 호주 외교통상부(DFAT) 2022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무슬림 벙골인 정착민과 소수 종교(불교 또는 기독교)를 믿는 치타공 구릉지대(CHT) 원주민 집단은 특히 토지 소유 및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충돌한다. 이러한 분쟁 중 일부는 종교적·인종적 양상을 띠기도 하지만, 종교와 인종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에 있다.”²²⁰
- 12.4.4 ‘기독교인’도 참조한다.
- 12.4.5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콕스 바자르(Cox’s Bazar)에 있는 자택에서 86세의 불교 승려가 신원 미상의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피해 승려의 아들은 부친이 사원 자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탓에 범행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²²¹
- 12.4.6 2024년 10월 자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구릉지대(CHT) 내 15개 불교 승려 단체 연합은 지속되는 치안 불안을 이유로, 올해 주요 전통 불교 축제인 ‘카틴 시바르 단(Kathin Civar Dan, 카티나 가사 공양 의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르바타 빅쿠 상가(Parbatya Bhikkhu Sangha) 의장인 슈라달란카르 마하테라(Shraddhalankar Mahathera) 스님은 2024년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리고 2024년 10월 1일에 카그라차리(Khagrachari)와 랑가마티 지구에서 토착민 공동체 소유 상점 수백 곳이 파손, 약탈, 방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벙골인 정착민이 불교도 사원도 표적으로 삼아 불상을 훼손하고 기부함을 약탈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들로 토착민 4명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²¹⁷ USCIRF, [2025 USCIRF Annual Report](#) (page 76), 25 March 2025

²¹⁸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51), 30 November 2022

²¹⁹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51), 30 November 2022

²²⁰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50), 30 November 2022

²²¹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II), 26 June 2024

이에 승려들은 축제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²²²

12.4.7 2025년 1월 7일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불교 공동체의 다양하고 고유한 축제는 통상 지역 사원이나 (승려들이 거주하는)승원에서 열린다.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불교 공동체는 공동체 간 공격과 폭력 사태, 그리고 종교적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막대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유산과 문화 및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²²³ 다만 해당 기사는 불교도가 직면한 '막대한 장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부연하거나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목차로 돌아가기](#)

12.5 기독교도

12.5.1 국제인권수호단체(HRDI)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기독교도가 교육 및 의료 분야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약한 사회적 입지와 반복되는 종교적 불관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²²⁴

12.5.2 호주 외교통상부(DFAT) 2022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반기독교 이슬람주의 집단에 의한 폭력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²²⁵

12.5.3 호주 외교통상부(DFAT) 2022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기독교도는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및 기타 제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회는 비기독교도에게도 개방된 광범위한 사회복지·보건·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주로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여에 따른 긍정적 평판은 기독교도가 겪는 사회적 고립과 차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련 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결과 일부는 서비스 제공 역량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를 대상으로 한 차별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물품 및 서비스 구매나 숙박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차별 피해 양상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상당수 기독교도는 자체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며 거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차별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은 주로 힌두교 하위 카스트나 토착민이며, 대개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 단위로 집단 개종하는 경향이 있다. 개종 후 차별이나 폭력을 겪는 사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종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편이다. 이는 개종이 주로 공동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족이나 공동체 차원의 차별 및 폭력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별 가족이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편, 일부 소식통은 불필요한 이목을 끌거나 잠재적 차별·폭력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례식이 비밀리에 행해지기도 한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했다. 이는 적어도 일부 개종 사례에는 폭력 및 차별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반기독교 이슬람주의 집단으로부터의 폭력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식통들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기독교도들이 교회 내에서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나 살해 위협이나 살인과 같은 사건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불교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중 상당수가 토착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폭력은 종교적 신념보다는 토지

²²² Buddhistdoor Global, [Indigenous Buddhists in Bangladesh's Chittagong Hill Tracts...](#), 9 Oct 2024

²²³ Buddhistdoor Global, [Buddhism in Modern Bangladesh](#), 7 January 2025

²²⁴ HRDI,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10 December 2024

²²⁵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58), 30 November 2022

분쟁이나 인종 차별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가톨릭 뉴스 웹사이트인 해외선교연구소 아시아 뉴스(Pontifical Institute for Foreign Missions Asia News, PIME Asia News)(PIME 아시아 뉴스)가 보도한 2021년 7월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불교도가 기독교도 개종자를 공격하여 다시 불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한 사례였다. 제보에 따르면, 기독교도 대부분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폭력 사태를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지역 모스크의 금요 기도가 끝난 후에는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조용히 예배를 진행하려 노력하는 식이다.”²²⁶

- 12.5.4 2022년 작성 시점의 입수 정보에 대한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도들은 국지적 사건이나 군중 폭력 형태의 사회적 폭력에 노출될 중간 정도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다른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들 역시 산발적인 공격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공동체나 가족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기독교(혹은 타 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의 경우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지나, 구체적인 위험 수위는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²²⁷

‘종교적 개종 항목’도 참조한다.

- 12.5.5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기독교 비정부기구(NGO)인 오픈 도어즈(Open Doors)는 2023년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 내 기독교 개종자가 ‘심각한 제약과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종종 공동체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픈 도어즈(Open Doors)는 개종자들이 ‘공격의 위험 때문에 소규모 가정 교회에 모이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교회가 박해 위험에 노출되며’,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은 전통 교단조차 살해 위협과 공격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루터교 선교회(Bangladesh Lutheran Church Mission, BLCM) 회장 모노토시 바나지리(Monotosh Banajaree)는 가톨릭교회가 방글라데시에서 ‘박해에 직면해 있지만’, ‘개신교는 더 광범위한 박해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비정부기구(NGO)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전했다. 바나지리 회장은 ‘일부 반기독교 사건은 힌두에 의해 자행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무슬림에 의해 자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 선언한다면, 즉각적인 위협과 폭력에 직면한다. 이러한 새 신자들은 가족과 공동체,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위기에 처한다’고 진술했다.”²²⁸

- 12.5.6 기독교도 박해 실태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의 기간을 다룬 오픈 도어즈 2025년 세계감시목록(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5)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압력과 폭력의 성격에 관한 상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국 연구자 및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²²⁹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보고서의 방글라데시 편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 또는 민족·부족적 배경을 지닌 개종자들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심각한 제약과 차별, 공격에 직면한다. 이들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우려하여, 주로 소규모 가정 교회나 비밀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²²⁶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s 3.55 to 3.60), 30 November 2022

²²⁷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60), 30 November 2022

²²⁸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²²⁹ Open Door, [World Watch List 2025 Parliamentary Report](#) (page 38), 14 Jan 2025

남성에 대한 박해는 여성에 비해 공개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은 구타, 고문 및 위협에 노출되는 반면, 여성은 성폭력, 괴롭힘, 강제 결혼 및 이혼 등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는 박해의 위협에 직면하며,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은 전통 교단조차도 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나 위협을 받을 수 있다.”²³⁰

- 12.5.7 오픈 도어즈 2025년 세계 감시 목록(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5) 보고서는 박해 위험이 가장 큰 기독교도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개종자(이슬람교 출신이 대다수이나, 힌두교, 불교 또는 전통 신앙 출신인 경우도 포함)가 박해받을 위험이 가장 크다.

여성과 여아 특히, 이들 중 개종자는 직계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및 지역 공동체로부터 가해지는 종교적 박해와 인권 침해에 가장 취약하다.

민족 공동체나 난민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기독교도는 심각한 폭력을 겪을 수 있다.”²³¹

- 12.5.8 오픈 도어즈 세계 감시 목록 2025(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5)는 기독교도가 박해에 직면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배신행위로 간주되어 공동체, 지역 지도자,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적대를 받는다. 민족적 소수자 출신 기독교도는 이중 박해, 즉 첫째는 민족을 이유로, 둘째는 신앙을 이유로 한 박해를 겪을 수 있다.”²³² 오픈 도어즈 세계 감시 목록(Open Doors World Watch List)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출처 또한 명시하지 않았다.

- 12.5.9 2024년 8월 12일 자 오픈 도어즈(Open Doors)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최소 7건의 관련 사건이 보고됐다. 한 사건의 경우, 흉기를 든 남성의 습격을 받은 피해자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으며, 그의 자택 또한 약탈당했다. ... 다른 주택들도 공격 및 약탈을 당했고, 교회들은 불법 점거됐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밝힌 많은 개종자는 지역 급진주의 지도자들의 위협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다.”²³³

- 12.5.10 2024년 12월 19일 오픈 도어즈(Open Doors)는 방글라데시 북부 교회들이 성탄절 행사 계획과 관련해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교회 구성원들,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게 됐다.²³⁴

- 12.5.11 방글라데시 북부의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은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 특히 [개종자]에 대한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지역 교회 지도자는 “최근 이슬람 종교 지도자 2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종교 지도자가 “무슬림을 개종시키려 하거나 무슬림 및 무슬림 출신 기독교도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슬림의 개종 활동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앞으로 주의하라”고 경고했다.”²³⁵

²³⁰ 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5: Bangladesh](#), 14 Jan 2025

²³¹ 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5: Bangladesh](#), 14 Jan 2025

²³² 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5: Bangladesh](#), 14 Jan 2025

²³³ Open Doors, [Rising number of converts targeted ...](#), 12 August 2024

²³⁴ Open Doors, [Christmas services get death threats in Bangladesh](#), 19 December 2024

²³⁵ Open Doors, [Christmas services get death threats in Bangladesh](#), 19 December 2024

12.5.12 오픈 도어즈(Open Doors)는 2025년 2월 25일, 마을 여성들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부 무슬림이 기독교도의 몸에 실제로 '표식'이나 '인장'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발생했다. 오픈 도어즈는 '여성에게 정숙함을 요구하는 문화에서 이와 같은 공격은 피해자인 조리나(Jorina)에게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고 전했다.²³⁶

12.5.13 동일한 보고서는 조리나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부부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리나는 ‘남편은 사방에서, 심지어 조카에게서조차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가족들은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역사에서 기독교인이 되어 가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킨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참석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조리나의 두 자녀 또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녀는 어느 날 아들이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친구들은 항상 제게 말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서 종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대요. 심지어 우리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겠다고도 해요.’”²³⁷

12.5.14 2025년 1월 23일, 박해받는 기독교도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²³⁸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²³⁸

“방글라데시의 기독교도인 토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의 “개종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나,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해야 하는 실질적 위험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의 많은 아동이 “다른 종교를 증오하는 악의적인 마음(nasty mentality)을 가지고 자란다”고 부연했다. 농촌 마을의 아동들은 기독교 가정의 ‘농작물과 텃밭을 훔치거나 훼손’하곤 한다. 그는 기독교도가 이러한 행태에 항의할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토마스는 도시에서는 반기독교 정서가 직장 내 비기독교도 직원들의 괴롭힘이나 협력 거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인 직원들이 일요일 근무를 강제로 떠맡게 되면서, 교회에 갈 것인지 직장을 지킬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마스는 기독교도 박해를 지지하는 방글라데시 무슬림의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가득 찬 우유 한 통을 상하게 하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다.”²³⁹

12.5.15 동일한 소식통은 기독교도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토마스는 ‘방글라데시 전역에 반기독교 정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정서가 주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근본주의 이슬람 신학교인 ‘마드라사’에서 수학한 무슬림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마드라사에서는 ‘벙글어는 무슬림의 언어가 아니며, 이슬람교만이 유일한 정통 종교’라고 가르친다. 토마스는 이에 대해 ‘이러한 교육은 유연한 사고를 가진 평범한 이들을 폭력적인 광신도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²⁴⁰

[목차로 돌아가기](#)

12.6 무신론자

²³⁶ Open Doors, [Shamed for her faith. Will Jorina see change?](#), 25 Feb 2025

²³⁷ Open Doors, [Shamed for her faith. Will Jorina see change?](#), 25 Feb 2025

²³⁸ ICC, [Who we are](#), no date

²³⁹ ICC, [Beyond the Headlines: 'Ever-Present' Persecution in Bangladesh and Sri Lanka](#), 23 Jan 2025

²⁴⁰ ICC, [Beyond the Headlines: 'Ever-Present' Persecution in Bangladesh and Sri Lanka](#), 23 Jan 2025

12.6.1 호주 외교통상부(DFAT) 2022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무신론은 일반적이지 않고 대중적이지 않다. 2015년, 무신론자 블로거 아비지트 로이가 테러 단체 안사르 알-이슬람(Ansar al-Islam) 직원들에게 피살됐다. 2021년 반테러 재판소는 살인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최근 보고된 무신론자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는 없다.

공개적으로 무신론을 밝히는 일은 매우 드물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분석할 만한 정형화된 사건 패턴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다. 무신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 할 경우 더욱 그렇다. 무신론자라는 혐의는 폭력을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신성모독 행위가 조작되어 무고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지기도 하며, 이는 집단 폭력이나 린치로 이어질 수 있다.”²⁴¹

12.6.2 2021년 2월 21일, 안보, 정치 및 인권에 관한 소식을 제공하는 뉴스 웹사이트²⁴²인 베나르 뉴스(Benar News)는 세속적 사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유가족과 연구원, 인권 옹호자들은 ‘블로거 아비지트 로이(Avijit Roy)가 다카의 문학 축제장을 나서던 중 종교 광신자들에게 피살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방글라데시 내 세속적 사상의 자유(freedom of secular thought)를 위한 환경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 이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 작년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했음에도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이 그대로 있어, 방글라데시는 세속 공동체에게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남아 있다.”²⁴³

12.6.3 ‘인본주의 이슈 캠페인과 박해 위기에 처한 인본주의자 보호 활동’²⁴⁴을 전개하는 비정부기구(NGO) 휴머니스트 인터내셔널(Humanists International)은 2025년 4월 11일 사상의 자유 보고서 방글라데시 편에서 사하다트(Sahadat, 2023.6.14.)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수록했다. “방글라데시는 살인이나 강간을 저질렀을 때보다, 무신론자임이 밝혀졌을 때 더 큰 증오를 받는 나라이다.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블로거 및 무신론자 피살 사건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2013년 이후, 20명이 넘는 무신론자가 이슬람 단체에 의해 흉기로 무참히 살해되었다. 인권 영화 제작자이자 작가인 나 또한 수천 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²⁴⁵

12.6.4 동일한 보고서는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실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인본주의자나 자유사상가인 작가, 블로거, 세속주의 출판인 다수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 2013년 2월에는 무신론자 블로거 아흐메드 라지브 하이드(Ahmed Rajib Haider, 필명: 타바 바바(Thaba Baba))가 자택에서 흉기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2015년 2월, 인본주의 및 과학 서적 저자인 아비지트 로이(Avijit Roy)가 다카 대학교 국제 도서관 행사장 밖에서 피살되었으며, 당시 함께 있던 아내 라피다 아흐메드(Rafida Ahmed) 또한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이어 2015년 3월에는 ‘진보적 자유사상가’로 알려진 젊은 블로거 와시쿠르 라흐만 바부(Washiqur Rahman Babu)가 피살되었고, 5월에는 근본주의를 비판하며 과학과 정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블로거 아난타 비조이 다스(Ananta Bijoy Das)가 살해됐다. 같은 해 8월, 소수자 및 여성 권리에 관한 저술 활동과 무신론적 견해로 잘 알려진 인본주의자 niladri 차터지(Niladri Chatterjee, 필명: niloi nil)가 자택에서 연인 앞에서 살해됐다. 2015년 10월 31일에는 아비지트 로이

²⁴¹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s 3.39 & 3.41), 30 Nov 2022

²⁴² BenarNews, [About Us](#), no date

²⁴³ BenarNews, [Freedom for secular thought still eludes Bangladesh...](#), 21 February 2025

²⁴⁴ Humanists International, [About Humanists International](#), no date

²⁴⁵ Humanists International, [The Freedom of Thought Report: Bangladesh](#), 11 April 2025

등 세속주의 작가들의 책을 출판한 다카 소재 출판사 두 곳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총기 및 흉기 공격이 자행됐다. 이 사건으로 자그리티(Jagriti) 출판사의 파이살 아레핀 디폰(Faysal Arefin Dipon)이 사망했고, 슈도-쇼르(Shuddho-Shor) 출판사의 아흐메드 라시드 투툴(Ahmed Rashid Tutul)과 작가 겸 블로거 란디팜 바수(Randipam Basu), 시인 타레크 라힘(Tareq Rahim)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2016년 4월, 방글라데시 최초의 성소수자(LGBTQ+) 잡지 창간자인 줄하즈 만난(Xulhaz Mannan)이 자택에서 피살되었으며, 같은 달 영문과 교수이자 작가인 레자울 카림 시디크(Rezaul Karim Siddique)와 무신론자 블로거 나짐우딘 사마드(Nazimuddin Samad) 또한 각각 개별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약 1년간의 소강상태를 거쳐 2018년, 출판인이자 블로거, 세속주의 정치 활동가인 샤자한 바추가 피살됐다.”²⁴⁶

12.6.5 2024년 8월 27일, 더 프린트(the Print)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임시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안사룰라 방글라 팀(ABT)’의 수장 자심우딘 라흐마니를 석방했다. 라흐마니는 블로거이자 활동가인 자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테러 조직 알카에다(AI-Qaeda)와 그 산하 인도 아대륙 지부(AI Qaeda in the Indian Subcontinent, AQ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자심우딘 라흐마니는 지난 월요일, 2013년 8월 블로거 라지브 하이드 살해 교사 혐의로 체포된 이래 수감되어 왔던 가지푸르(Gazipur) 소재 카심푸르 중앙 교도소(Kashimpur High Security Central Jail)에서 석방됐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발생한 세속주의 블로거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표적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으며, 안사룰라 방글라 팀(ABT)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한 바 있다. 라흐마니는 2015년 12월, 2013년 하이드 살해 교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테러와 연계된 기타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었던 점은 그가 계속 수감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흐마니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사건이 취하되어 석방이 가능해졌다.

라흐마니가 이끄는 안사룰라 방글라 팀(ABT)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발생한 아비지트 로이, 오야시쿠르 라흐만 바부(Oyasiquir Rahman Babu), 아난타 비조이 다스(Ananta Bijoy Das) 및 라즈샤히 대학교(Rajshahi University) 교수 AKM 샤피울 이슬람(AKM Shafiul Islam) 등 다수의 블로거와 작가 피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했다.”²⁴⁷

12.6.6 참고자료 검토 결과 무신론자 대상 폭력에 관한 최근 보고 사례는 없다(참고문헌 참조).

[목차로 돌아가기](#)

12.7 아흐마디교도

12.7.1 호주 외교통상부(DFAT) 2022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아흐마디교도는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규정하나, 방글라데시의 많은 무슬림은 이들이 예언자 무함마드 이후 도래한 또 다른 예언자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무슬림(일부는 배교자)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신체적 공격, 사업체 불매 운동, 그리고 파키스탄의 사례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비무슬림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차별과 괴롭힘,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²⁴⁸

12.7.2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2022년 보고서 작성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이

²⁴⁶ Humanists International, [The Freedom of Thought Report: Bangladesh](#), 11 April 2025

²⁴⁷ The Print, [Who is Jashimuddin Rahmani, pro-al-Qaeda chief of Islamist...](#), 27 August 2024

²⁴⁸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62), 30 November 2022

기술했다. “아흐마디교도는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중간 수준의 사회적 폭력 위험에 직면해 있다. 여타 소수자와 같이 아흐마디교도는 산발적 공격 또는 군중 폭력의 위험에 직면한다. 아흐마디교도가 포교 활동에 나설 경우 폭력 발생의 위험이 더 커진다. 아흐마디교도는 중간 수준의 사회적 차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아흐마디교도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숨기려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²⁴⁹

- 12.7.3 미국 국무부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USSD RIRF 2023 report)는 아흐마디교도에 대한 사회적 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폭력 사태의 대부분은 금요 기도회 직후 시작되었으며, 토요일 지역 모스크에서 반아흐마디 활동가들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방송된 후 더욱 격화되었다.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는 이번 충돌로 아흐마디교도 1명을 포함해 2명이 사망했으며, 아흐마디교도와 경찰관 등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아흐마디교 공동체 대변인은 사망자 중 1명이 아흐마디 무슬림 행사의 경비원이었던 자히드 하산(Zahid Hasan)이라고 신원을 확인했다. 국제인권위원회(IHRC) 대변인은 다음 날 시작될 예정이던 집회에 반대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이미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약탈과 폭력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과 지역 당국이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은 현지 아흐마디교 지도자와 목격자들을 인용해 군중이 5개 마을에 걸쳐 아흐마디교도 가옥 수백 채를 약탈하거나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인권위원회(IHRC)는 아흐마디 모스크 1곳과 진료소 1곳 또한 파괴됐다고 밝혔다.”²⁵⁰ 이 사건의 경찰 대응에 관한 정보는 ‘보호’를 참조한다.

- 12.7.4 2024년 10월 9일 UCA 뉴스(UCA News)는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의 아흐마디교도 공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아흐마디 이슬람 종파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방글라데시 내 아흐마디교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 공격 관련 소송의 취하를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증오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흐마디교도 공동체는 8월 초,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의 장기 독재 정권이 축출된 이후 초래된 치안 공백 상황을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박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 7일, 강경파 무슬림들이 북부 판차가르 지구에서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며, 지난해 발생한 두 차례의 집단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아흐마디교도들이 제기한 23건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강경파 무슬림 집단의 시위 참가자들은 아흐마디교도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며,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가 이끄는 임시정부에 파키스탄의 사례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공식적인 ‘비무슬림’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무슬림이 아흐마디교도의 연례 야간 종교 행사인 ‘잘사(Jalsa)’의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2023년 3월 3일, 이슬람주의 폭도들이 아흐마디교도가 주로 거주하는 아메드나가르(Ahmadnagar) 마을을 공격했다.”²⁵¹

- 12.7.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5 사실조사 보고서(OHCHR 2025 FF repo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아흐마디 무슬림 공동체는 범이슬람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다른 이슬람 종파를 따르는 일부 세력으로부터 적대감과 차별을 겪고 있다. 아흐마디교도 공동체는 시위의 여파로 특정

²⁴⁹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paragraph 3.64), 30 November 2022

²⁵⁰ USSD,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section 2), 26 June 2024

²⁵¹ UCA News, [Bangladeshi Ahmadiyyas targeted by hate campaign](#), 9 October 2024

대상을 겨냥한 폭력에 직면했으며, 2024년 8월 5일부터 9일 사이에만 7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4년 8월 5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한 집단이 판차가르 지구의 아흐마디교도들을 습격, 가옥과 모스크를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를 접수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판차가르에서 발생한 2024년 8월 5일 공격 당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16세 소년의 사례도 기록했다...”²⁵² 이 공격에 관한 추가 정보는 ‘보호’를 참조한다.

- 12.7.6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2025년 보고서는 2024년 8월 정치적 소요 사태 이후의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흐마디 무슬림 공동체 또한 신체 및 재산 공격에 대한 피해를 보고했다.”²⁵³

[목차로 돌아가기](#)

12.8 수피 교도

- 12.8.1 2016년 5월 7일 자 BBC 뉴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수피즘(Sufism)은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에서 대중적이나, 신비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수니파 무슬림 다수에게는 이단으로 간주된다.²⁵⁴

- 12.8.2 2023년 11월 20일 일간지 데일리 스타(Daily Star)는 수피 교도의 사회적 처우와 관련하여, 한 수피 교도의 인터뷰를 포함한 기고문을 발표했다.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는 역사적으로 강한 혼합주의적 성격을 띠어 왔으나, 최근 일부 집단이 보다 정통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 교리를 주입하려 함에 따라 상당수의 수피 전통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 수피 교도의 진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 수피 교도가 직면하는 간접적 박해의 사례로, 수남간지 지역의 이슬람 성직자(*hujurs*)(후주르)들이 성인(聖人)의 기일을 기리는 연례 전통 종교 행사인 ‘우르스(*urs*)’에서 노래를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는 가족력을 밝히는 것이 항상 두려운 일이며, 가까운 지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신념과 종교 의식을 비판하는 이들과 수차례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간접적 박해’는 경우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020년 1월 바울(Baul) 가수 샤리아트 사르카르(Shariat Sarkar)는 꾸란(Quran)은 음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후, 이슬람 성직자로부터 고발당해 체포됐다. 그해 말 리타 데완(Rita Dewan)은 전통 민속 음악 공연인 팔라 간(*pala gaan*) 공연 중 “종교적 정서를 해쳤다”는 혐의로 두 차례 피소됐다. 두 사건 모두 현재는 효력이 정지된 「디지털 보안법(DSA)」에 근거하여 제기됐다.”²⁵⁵

- 12.8.3 2024년 9월 15일 방글라데시 신문 다카 트리뷴(Dhaka Tribune)은 수피 성지 피해 현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성지에 대한 공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방글라데시 경찰청이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²⁵²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page 56), 12 Feb 2025

²⁵³ USCIRF, [2025 USCIRF Annual Report](#) (page 76), 25 March 2025

²⁵⁴ BBC News, [Bangladesh: Sufi Muslim murdered by suspected extremists](#), 7 May 2016

²⁵⁵ The Daily Star, [The scattered legacies of Bengal's Sufis](#), 20 November 2023

그러나 성지 관계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50개소 이상의 성지가 공격받았다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정부 수석 고문실(Office of the Chief Adviser)은 또한 토요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련의 성지 공격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명했으며,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공격이 수일간 지속됐으며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2024년 9월 5일 밤 나라얀간지 소재 데완바그 다르바르 샤리프(Dewanbagh Darbar Sharif)가 피습으로 불에 탔다. 이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성지를 겨냥한 공격이 잇따랐으며, 일부 성지에서는 음악 연주마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 성지들의 교인들은 현재 공포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코밀라(Comilla) 낭갈콧(Nangalkot) 소재 수피 성지인 야주라 다르바르 샤리프(Yajoor Darbar Sharif)의 수석 관리인 시에드 골람 모인우딘 부이얀(Syed Golam Moinuddin Bhuiyan)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4년 9월 9일 이곳 성지가 습격당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이후 방화로 소실됐다. 이 지역에서 7~8곳의 성지가 추가로 공격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최소 50곳이 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격의 가담자들은 카우미 마드라사(Qawmi madrasas) 학생들이다. 특정 사익 집단이 지역 내 여러 마드라사 교사와 학생을 동원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 3,000개 이상의 성지가 있으며, 모든 성지의 교도가 현재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실렛 지역 하즈라트 샤 파란 성지(Hazrat Shah Paran Shrine) 관리인 피로즈 미아(Firoz Mia)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024년 9월 9일 새벽 3시경, 성지에서 우르스 기념행사가 진행되던 중 습격이 발생했다. 습격범들은 성지 기물을 파괴하고 CCTV 카메라를 부순 뒤 탈취해 갔다. 또한 현지에서 ‘파글라(pagla)’로 불리는 신자를 구타했다. 공격 도중 이들은 ‘성지에서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으며, 마리화나 흡연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다.”²⁵⁶

- 12.8.4 2024년 9월 18일 인도 최대 비즈니스 뉴스 매체²⁵⁷인 이코노믹 타임스(Economic Times)는 수피 성지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24년 지난 8월 5일 셰이크 하시나 정권이 붕괴된 이후, 방글라데시 내 여러 종교 집단과 소수자들을 겨냥한 증오 발언 및 공격이 급증했다. 그중 대표적인 피해 집단이 바로 방글라데시의 수피 교도 공동체이다.

수피 교도 공동체는 방글라데시 내 많은 신자와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폭력적 성향 때문에 강경파와 급진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수피 성지에 대한 최초 공격은 2024년 8월 5일과 6일에 보고됐다. 이후 2024년 9월 6일 금요일 기도가 끝난 직후, 학생, 강경파 및 지역 모스크의 이맘(imam)과 주민으로 구성된 난폭한 폭도들이 실렛의 하즈라트 샤 포란 성지(Hazrat Shah Poran Shrine) 경내를 급습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자마트-에-이슬람(Jamat e Islam)의 유명 페이스북 계정인 ‘바샤르켈라(Basharkella)’는 해당 시위를 지지하며 전국 각지의 수피 성지와 수피 예배 장소인 칸카(Khanqa)에 대한 추가 공격과 시위를 선동했다.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후 수피 성지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러한 양상의 수피 성지 공격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²⁵⁸

²⁵⁶ Dhaka Tribune, [Why attacks on shrines remain rampant in Bangladesh?](#), 15 September 2024

²⁵⁷ The Economic Times, [Products](#), no date

²⁵⁸ The Economic Times, [Sufi shrines across Bangladesh target of radicals...](#), 18 Sep 2024

12.8.5 2024년 10월 1일, 아시아가톨릭뉴스(UCA News)는 수피 성지 습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24년 9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이슬람주의 폭도들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사바르(Savar) 지역 수피파 무슬림 지도자 카지 자베르 아흐메드(Kazi Jaber Ahmed, 40세)의 자택을 습격했다. 상당수의 추종자를 거느리던 아흐메드는 이 공격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 당시 자택에 함께 있던 추종자 40여 명과 함께 부상을 입었다.

카지 자베르 아흐메드는 아시아가톨릭뉴스(UCA News)에 “가해자들은 와하비 무슬림들이며, 수피 교도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습격범들이 둔기와 흉기로 무장했다고 주장했다.

아흐메드는 지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아직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의 공식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카지 자베르 아흐메드는 이번 공격이 사전에 계획된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이맘과 마드라사 교장 등 강경파 이슬람주의자들이 일주일 넘게 지역 내 회합을 가지며 조직적으로 군중을 동원했다는 것이다.”²⁵⁹

12.8.6 2025년 1월 31일, 아시아가톨릭뉴스(UCA News)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강경파 무슬림’의 위협으로 이슬람 신비주의 분파인 수피 교의 한 성지가 연례 행사 기간 중 관례적으로 거행해 오던 종교 음악 및 무용 의식을 중단해야 했다.

이번 결정은 성지 내 음악과 춤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며 금지를 요구하는 이슬람 강경파들의 지역 내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려졌다.

강경파 무슬림은 8세기 중동에서 이슬람교의 한 분파로 시작된 수피즘을 배척한다. 강경파 무슬림은 노래, 춤, 성지 순례와 같은 수피 전통이 이슬람 율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간주한다.

방글라데시는 수 세기 전 이슬람을 전파했던 수피 전도자(missionaries)들을 기리는 성지가 수천 곳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로, 이곳에서 성지를 순례하고 성인(saint)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 문화이다.

강경파 시위자들은 관할 당국이 자신들이 ‘반이슬람적 관행’으로 규정한 행위들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성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수피 교도 단체 글로벌 수피 기구(Global Sufi Organization)의 지도자 하산 샤 수레슈와리 디푸 누리(Hasan Shah Sureshwari Dipu Nuri)는 “이슬람주의자들이 노래와 춤을 비이슬람적인 것이라며 방글라데시 전역의 수피 성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산 샤 수레슈와리 디푸 누리는 또한 강경파 무슬림이 우르스 축제를 마약 남용을 위한 위장막이라고 비난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보수적인 이슬람 해석을 관철시키려는 목적 하에 우르스 종교 행사를 폄훼하려는 계략이라고 설명했다.”²⁶⁰

[목차로 돌아가기](#)

13. 구제 수단

13.1 공식 민원 처리 제도

13.1.1 2024년 8월 14일, 일간지 데일리 스타(Daily Star)는 방글라데시의 행정감찰관 ‘옴부즈만’ 제도 부재와

²⁵⁹ UCA News, [Fanatics target Sufi shrines, minorities in Bangladesh](#), 1 October 2024

²⁶⁰ UCA News, [Bangladeshi Sufi shrine drops devotional music over Islamist threat](#), 31 January 2025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의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도입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에게 고충을 제기하고 구제를 모색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대중의 불만과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여 부패와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²⁶¹

13.1.2 2024년 12월 12일, 프레센자(Pressenza)는 관련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소수자에 대한 보호 강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방글라데시 내에서는 ‘소수자 전담 부처(Ministry for Minority Affairs)’ 설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옹호론자들은 해당 부처가 소수자 공동체가 직면한 고유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국가적 담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식적인 기제(mechanism)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2013년 귀속 재산 반환법(Vested Property Return Act of 2013)」과 같은 조치들은 과거 정권 시절 힌두교도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다수는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은 역사적 차별에서 기인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됐으나, 관료주의적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²⁶²

13.1.3 검토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국가정책정보팀(CPIT)은 종교적 소수자를 위한 특정 민원 처리 제도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참고문헌 참조).

13.1.4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국가정책정보노트: 방글라데시 보호 행위자’를 참조한다.

[목차로 돌아가기](#)

13.2 시민사회 단체

13.2.1 방글라데시 힌두교·불교·기독교 연합 평의회 미국 지부(Bangladesh Hindu, Buddhist & Christian Unity Council, USA, BHBCUC, USA)는 작성일 미상의 웹페이지에서 단체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 방글라데시 내 종교적·민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소수자가 국가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되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입법자,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당국의 협력을 구한다.”²⁶³

13.2.2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ASK)의 사명은 ‘인권, 평등, 형평성, 세속주의, 법치, 사회 정의 및 민주주의의 원칙을 포괄하는 권리 기반 접근법을 토대로 공동체 운동과 사회적 동원, 역량 강화, 법률 서비스, 권익 보호 활동 및 정책 개입을 통해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²⁶⁴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통계 자료를 매월 발표하고, 법률 구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²⁶⁵

13.2.3 오디카(Odhikar)는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인권 단체 중 하나’이다.

²⁶¹ The Daily Star, [The urgent need for an Ombudsman in Bangladesh...](#), 14 Aug 2024

²⁶² Pressenza, [Is Bangladesh Living Up to Its Promise of Religious Harmony?](#), 12 December 2024

²⁶³ BHBCUC, [Our Mission](#), no date

²⁶⁴ ASK, [Mission](#), no date

²⁶⁵ ASK [What We Do](#), no date

오디카(Odhikar)는 방글라데시 전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걸쳐 협력 단체 및 인권 옹호자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²⁶⁶ 오디카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담은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권 옹호 및 증진 활동을 펼치며, 선거 감시 활동을 수행한다.²⁶⁷

- 13.2.4 프리덤하우스(FH) 2024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임시정부 하에서, 비정부기구(NGO)는 감시나 국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었다 보고했으나, 부패를 비롯한 활동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다.”²⁶⁸

[목차로 돌아가기](#)

²⁶⁶ Odhikar, [About Odhikar](#), no date

²⁶⁷ Odhikar, [Mission](#), no date

²⁶⁸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section E2), 26 Feb 2025

연구방법론

이 보고서에 수록한 국가정황정보(COI)는 2008년 4월 발간된 [국가정황정보 처리에 관한 유럽연합 공통 지침\(Common European Union Guidelines for Processing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및 오스트리아 출신국 및 비호 연구문서화센터(Austrian Centre for Country of Origin and Asylum Research and Documentation, ACCORD)의 국가정황정보(COI) 연구 – 2024년 [교육 매뉴얼\(Researching Country Origin Information-Training Manual\)](#)에 명시된 COI 연구의 일반 원칙에 따라 관련성, 신뢰성, 정확성, 균형성, 통용성, 투명성 및 추적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했다.

정보원이 제공하는 출처와 정보는 이 문서에 포함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했다. 출처 및 정보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출처의 동기, 목적, 지식과 경험
- 정보 획득 방법(구체적인 방법론 포함)
- 정보의 통용성과 세부사항
- 다른 출처의 국가정황정보(COI)와 일치 여부 및/또는 다른 출처를 통한 사실 확인 가능 여부

국가정황정보(COI)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출처 및 정보에 관한 해설을 덧붙일 수 있다.

가능한 복수 출처의 정보를 참고하고,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황정보(COI)를 비교 검증하며 발행 시점에 주제와 관련된 최신 상황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단, 이 보고서에서 인용된 출처의 시각이나 견해를 내무부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 내 각 정보는 각주에 출처를 명시한다.

이 보고서 작성 시 인용 및 참고한 출처의 세부사항은 [참고문헌](#)에 알파벳순으로 배열했다.

[목차로 돌아가기](#)

작업지침

‘작업지침(Terms of Reference, ToR)’은 이 문서가 다루는 주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며 국가정황정보(COI)의 작성 기초가 된다.

이 국가정책정보노트(CPIN)의 초안 작성 전, 아래의 주제들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 주제들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 법적 배경
 - 헌법
 - 신분관계법
 - 신성모독법
 - 형법
 - 개종법
- 종교 인구 통계 및 지리적 분포
- 정치적 대표성 및 참여
-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처우
-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 구제 수단
 - 비정부기구(NGO)의 존재 및 정부의 책임

[목차로 돌아가기](#)

참고문헌

인용 출처

Aid to the Church in Need (ACN),

[2023 Religious Freedom Report: Bangladesh](#), June 2023. Accessed: 15 May 2025

[Our Mission](#),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Ain O Salish Kendra (ASK)

[About us](#),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Mission](#),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2](#), 3 January 2023. Accessed: 22 April 2025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3](#), 8 January 2024. Accessed: 22 April 2025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Dec 2024](#), 31 December 2024. Accessed: 22 April 2025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Jan-Feb 2025](#), 11 March 2025. Accessed: 22 April 2025

[What We Do](#),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Amnesty International,

[Bangladesh: Repackaging Repression: The cyber security act and the continuing lawfare against dissent in Bangladesh](#), 8 August 2024. Accessed: 11 March 2025

[Urgent Action: Blogger Arbitrarily Detained Despite Bail](#), 10 June 2024. Accessed: 11 March 2025

ANI News

[About Asian News International](#), no date. Accessed: 25 March 2025 [Violence against minorities continues in Bangladesh, says Minority group](#), 12 March 2025. Accessed: 25 March 2025

[Bangladesh: Hindu priest Chinmoy Krishna Das shown arrested in four murder cases](#), 5 May 2025. Accessed: 14 May 2025

[Violence against minorities continues in Bangladesh, says Minority group](#), 12 Mar 2025. Accessed: 12 May 2025

Arab News,

[About Us](#),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Ancient monastery stands witness to Bangladesh's rich Buddhist past](#), 11 January 2024. Accessed: 22 April 2025

Article 19,

[About us](#),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Bangladesh: ARTICLE 19 urges consultation on Draft Cyber Protection Ordinance](#), 3 February 2025. Accessed: 22 April 2025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DFAT Country Information Report Bangladesh](#) , 30 November 2022. Accessed: 19 March 2025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BB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2, National Report](#) , November 2023. Accessed: 25 March 2025

Bangladesh Sangbad Sangstha (BSS) News,
[410 cases over 'speech-based' offences under cyber laws scrapped](#), 29 March 2025. Accessed: 12 May 2025
[BSS Profile](#),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Bangladesh Hindu, Buddhist & Christian Unity Council (BHBCUC),
[Our Mission](#), no date. Accessed: 25 March 2025
[Report on Communal Atrocities committed upon the Religious-Ethnic Minorities in Bangladesh](#), 30 January 2025. Accessed: 12 May 2025

BBC News,
[Bangladesh: Sufi Muslim murdered by suspected extremists](#), 7 May 2016. Accessed: 25 March 2025
[The far-right videos distorting the truth of Bangladesh minority attacks](#), 18 August 2024. Accessed: 11 March 2025
['There is no law and order. And Hindus are being targeted again'](#), 6 August 2024. Accessed: 12 May 2025

BBC Monitoring (BBC-M), Bangladesh reaffirms commitment to protecting minority rights, 2 May 2025. Accessed: 14 May 2025 (Copy available on request)

Bertelsmann Stiftung's Transformation Index (BTI),
[BTI 2024 Country Report: Bangladesh](#), 19 March 2024. Accessed: 25 March 2025
[Methodology](#), no date. Accessed: 25 March 2025

BenarNews,
[About Us](#), no date
[Freedom for secular thought still eludes Bangladesh, a decade after blogger's murder](#), 21 February 2025. Accessed 12 May 2025

Buddhanet, [World Buddhist Directory](#) (Bangladesh),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Buddhistdoor Global,
[Buddhism in Modern Bangladesh: A Brief History of Lineages and Cultural Practices](#), 7 January 2025. Accessed: 31 March 2025
[Indigenous Buddhists in Bangladesh's Chittagong Hill Tracts Cancel Kathina Robe-Offering Festival in the Wake of Communal Violence](#), 9 October 2024. Accessed: 25 March 2025
[Mission Statement](#), no date. Accessed: 25 March 2025

The Business Standard,

[About Business Standard](#), no date. Accessed: 6 May 2025

[Govt condemns attacks on shrines, vows to take strict actions](#), 12 September 2024. Accessed: 13 May 2025

[Hindu youth gets 10 years' jail for anti-Islam comments](#), 24 May 2023. Accessed: 6 May 2025

[Major reshuffle in police high-ups](#), 13 August 2024. Accessed 25 March 2025.

[Police to take stern actions against anyone taking law into their own hands](#), 20 September 2024. Accessed 25 March 2025.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The World Factbook: Bangladesh](#), 19 March 2025. Accessed: 25 March 2025

Centre for Democracy, Pluralism and Human Rights (CDPHR),

[About us](#),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Report on Bangladesh Minorities Under Siege](#), 13 December 2024. Accessed: 12 May 2025

Christian Religious Welfare Trust (CRWT),

[Church List](#), 19 September 2015. Accessed: 12 May 2025

[Mission & Vision](#), 23 September 2024. Accessed: 12 May 2025

Clooney Foundation for Justice (CFJ),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of 2006: Bangladesh's Zombie Cyber Security Law](#), 1 November 2024. Accessed: 25 March 2025

The Daily Star,

[5 top Buddhist sites in Bangladesh](#), 14 May 2022. Accessed: 22 April 2025

[About Us](#), no date. Accessed: 14 March 2025

[DSA Case: Poritosh gets 5 years in jail](#), 9 February 2023. Accessed: 25 February 2025

["Relieve us of this nightmare": Plead those accused in DSA cases](#), 12 June 2022. Accessed: 8 May 2025

[The urgent need for an Ombudsman in Bangladesh to enhance transparency and democracy](#), 14 August 2024. Accessed: 1 May 2025

[The scattered legacies of Bengal's Sufis](#), 20 November 2023. Accessed: 6 May 2025

Dhaka Tribune,

[4 arrested over attack on Hindu community in Sunamganj](#), 14 December 2024. Accessed: 15 May 2025

[Police HQ: Stern actions to be taken for taking laws into hands](#), 20 September 2024. Accessed 25 March 2025

[Why attacks on shrines remain rampant in Bangladesh?](#), 15 September 2024. Accessed: 25 March 2025

[Yunus to religious leaders: We are not each other's enemies](#), 4 December 2024. Accessed: 23 April 2025

East Asia Forum (EAF)

[About](#),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Minorities in Bangladesh caught within political upheaval](#), 22 March 2025. Accessed: 15 May 2025

The Economic Times,

[Products](#), no date. Accessed: 20 March 2025

[Sufi shrines across Bangladesh target of radicals and extremists](#), 18 September 2024. Accessed: 20 March 2025

Ei Samay,

[About Us](#),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How many Hindu temples are there in Bangladesh](#), 20 February 2024. Accessed: 22 April 2025

EU Election Expert Mission (EU EEM), [European Union Election Expert Mission Bangladesh 2024 Final Report](#), 7 January 2024. Accessed: 12 May 2025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Research Methodology](#), no date. Accessed: 25 March 2025

[Freedom in the World 2024: Bangladesh](#) (section D4), February 2024. Accessed: 12 May 2025

[Freedom in the World 2025: Bangladesh](#), 26 February 2025. Accessed: 25 March 2025

FSSPX. News,

[About us](#), no date. Accessed: 14 May 2025

[Bangladesh: Political Islam Asserts Itself](#), 29 April 2024. Accessed: 14 May 2025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GoB),

[Cyber Security Act 2023](#), 18 September 2023. Accessed: 25 March 2025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November 1972. Accessed: 25 March 2025

[The Penal Code of 1860](#), 6 Oct 1860. Accessed: 25 March 2025

Human Rights Defense International (HRDI),

[About us](#), No date. Accessed: 31 March 2025

[The Changing Religious Demography of Bangladesh: A Deep Dive](#), 10 December 2024. Accessed: 31 March 2025

Humanists International,

[About Humanists International](#), no date. Accessed: 14 May 2025

[The Freedom of Thought Report: Bangladesh](#), 11 April 2025. Accessed: 14 May 2025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Who we are](#), no date. Accessed: 14 May 2025
[Beyond the Headlines: 'Ever-Present' Persecution in Bangladesh and Sri Lanka](#), 23 January 2025. Accessed: 14 May 2025

JusticeMakers Bangladesh in France (JMBF),
[About us](#), no date. Accessed: 14 May 2025
[Press & Public Statement: JMBF Strongly Condemns the Continuous Attacks on Minorities in Bangladesh and Demands Immediate International Intervention](#), 18 March 2025. Accessed: 19 March 2025

Netra News,
[About](#), no date. Accessed: 14 May 2025
[4 Arrested For Damaging Hindu Temple, Houses In Bangladesh](#), 15 December 2024. Accessed: 14 May 2025

New Age,
[About Us](#),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Badrunnessa student jailed in DSA case](#), 10 May 2023. Accessed: 12 May 2025
[Rangpur man jailed for 10 years for defaming Islam](#), 23 May 2023. Accessed: 12 May 2025

The New Indian Express,
[About Us](#),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Bangladesh acknowledges attacks on minorities; says 88 cases filed, 70 arrested so far](#), 11 December 2024. Accessed: 12 May 2025

Odhikar,
[About Odhikar](#),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Mission](#),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OrQuest, [Overview & Guiding Principle](#),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Open Doors,
[About](#), no date. Accessed: 11 March 2025
[FAQs](#), no date. Accessed: 11 March 2025

[Christmas services get death threats in Bangladesh](#), 19 December 2024. Accessed: 11 March 2025

[Rising number of converts targeted as political and social unrest engulfs Bangladesh](#), 12 August 2024. Accessed: 24 March 2025

[World Watch List 2025 Parliamentary Report](#) 14 January 2025. Accessed: 12 May 2025

[World Watch List 2025: Bangladesh](#), 14 January 2025. Accessed: 12 May 2025

Pew Research Center (PRC)

[About Pew Research Center](#),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Country-Specific Methodology](#), no date. Accessed: 22 April 2025

[Around the World, Many People Are Leaving Their Childhood Religions](#) (Chapter 5), 26 March 2025. Accessed: 22 April 2025

Pressenza, [Is Bangladesh Living Up to Its Promise of Religious Harmony?](#), 12 December 2024. Accessed: 31 March 2025

The Print,

[About](#), no date. Accessed: 8 May 2025

[Who is Jashimuddin Rahmani, pro-al-Qaeda chief of Islamist outfit freed by interim Bangladesh govt](#), 27 August 2024. Accessed: 8 May 2025

Prothom Alo,

[About Us](#), no date. Accessed: 23 April 2025

[Muslim, Hindu, Buddhist, Christian, all want to build a beautiful Bangladesh: Army chief](#), 9 Nov 2024. Accessed: 23 April 2025

[Reform commissions: Less women, no members of the religious minority](#), 24 October 2024

South Asia Terrorism Portal (SATP)

[About us](#), no date. Accessed: 14 May 2025

[Bangladesh: Assessment- 2025](#), no date. Accessed: 14 May 2025

Tvista,

[About Us](#), no date. Accessed: 12 May 2025

[Fact-Check: Claims of Widespread Religious Violence and Islamist Extremism in Bangladesh Are Exaggerated](#), 25 March 2025. Accessed: 12 May 2025

UK Parliament, [Bangladesh: Attacks on Hindu Community](#), 2 December 2024. Accessed: 12 May 2025

Union of Catholic Asia (UCA) News,

[About Us](#), no date. Accessed: 12 April 2025

[Bangladeshi Ahmadiyyas targeted by hate campaign](#), 9 October 2024. Accessed: 25 March 2025

[Bangladeshi Sufi shrine drops devotional music over Islamist threat](#), 31 January 2025. Accessed: 24 March 2025

[Fanatics target Sufi shrines, minorities in Bangladesh](#), 1 October 2024. Accessed: 25 March 2025

[Proposal for blasphemy law raises eyebrows in Bangladesh](#), 16 March 2024. Accessed: 11 March 2025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related to the Protests of July and August 2024 in Bangladesh](#), 12 February 2025. Accessed: 13 March 202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Olivier De Schutter](#) (paragraph 12), 30 April 2024. Accessed: 23 April 2025

[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on Bangladesh](#), 24 August 2023. Accessed: 22 April 2025

US State Department (USSD),

[2020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12 May 2021. Accessed: 25 March 2025

[2023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angladesh](#), 26 June 2024. Accessed: 25 March 2025

Vatican News,

[About us](#), no date. Accessed: 15 May 2025

[Report records 1,045 cases of violence against minorities in Bangladesh](#), 10 July 2024. Accessed: 15 May 2025

Voice of America (VoA), [Survey: 4 months after uprising, most Bangladeshis want new elections](#), 2 December 2024. Accessed: 14 May 2025

Xe.com, [BDT to GBP - Convert Bangladeshi Takas to British Pounds](#), 25 March 2025. Accessed: 25 March 2025

Yusoff, Ahmad Nasir Mohad and Islam, AHM Shafiqul, [The Legal System of Bangladesh: The Duality of Secular and Islamic Law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23 November 2024. Accessed: 25 March 2025

[목차로 돌아가기](#)

미인용 참고자료

Amnesty International,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2024](#), 30 May 2024. Accessed: 11 March 2025

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Bangladesh – Country Focus](#), July 2024. Accessed: 15 May 2025

European Union, EEAS -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22 Country Updates](#), 31 July 2023. Accessed: 26 March 2025

Freshangle, [Bangladesh's Silent Descent: The Battle for Secular Identity](#), 19 March 2025. Accessed: 19 March 2025

Odhikar, [Bangladesh: Annual Human Rights Report 2024](#), 10 February 2025, Accessed: 15 May 2025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24 Annual Report](#), 5 May 2024. Accessed: 11 March 2025

Refugee Documentation Centre of Ireland, [COI Query Response - Bangladesh - Political persecution](#), 9 December 2024. Accessed: 26 March 2025

[목차로 돌아가기](#)

버전 관리 및 의견 수렴

승인

이 문서의 승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버전 **4.0**
- 유효기간: **2025년 6월 6일부터**

내무부 비공개 민감 정보 – 시작

이 절의 기재 정보는 영국 내무부 대외비 자료로 이 문서에서 삭제한다.

내무부 비공개 민감 정보 – 종료

[목차로 돌아가기](#)

이 문서의 이전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

최신 국가정보 업데이트

[목차로 돌아가기](#)

영국 내무부로 의견 제출 방법

영국 내무부의 목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국가정황정보(COI)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내무부는 국가정책정보노트(CPIN)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을 환영하며,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은 영국 내무부 국가정책정보팀(Country Policy and Information Team)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

[국경이민국독립감사관\(Independent Chief Inspector of Borders and Immigration\)](#)은 내무부가 제공하는 국가정황정보의 효율성, 효과성 및 접근 방식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2009년 3월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ndependent Advisory Group on County Information, IAGCI)을 설립했다.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AGCI)은 내무부 국가정황정보(COI) 자료에 대한 제안 사항이나 의견을 받고 있다. 단,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AGCI)은 내무부 자료, 절차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내무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AGCI)의 주소와 이메일은 아래와 같다.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

국경이민국독립감사관

1st Floor
Clive House
70 Petty France
London
SW1H9EX

전자우편주소: chiefinspector@icibi.gov.uk

국가정황정보독립자문단(IAGCI)의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문단이 검토한 문서들의 목록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website](http://gov.uk))의 국경이민국독립감사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로 돌아가기](#)